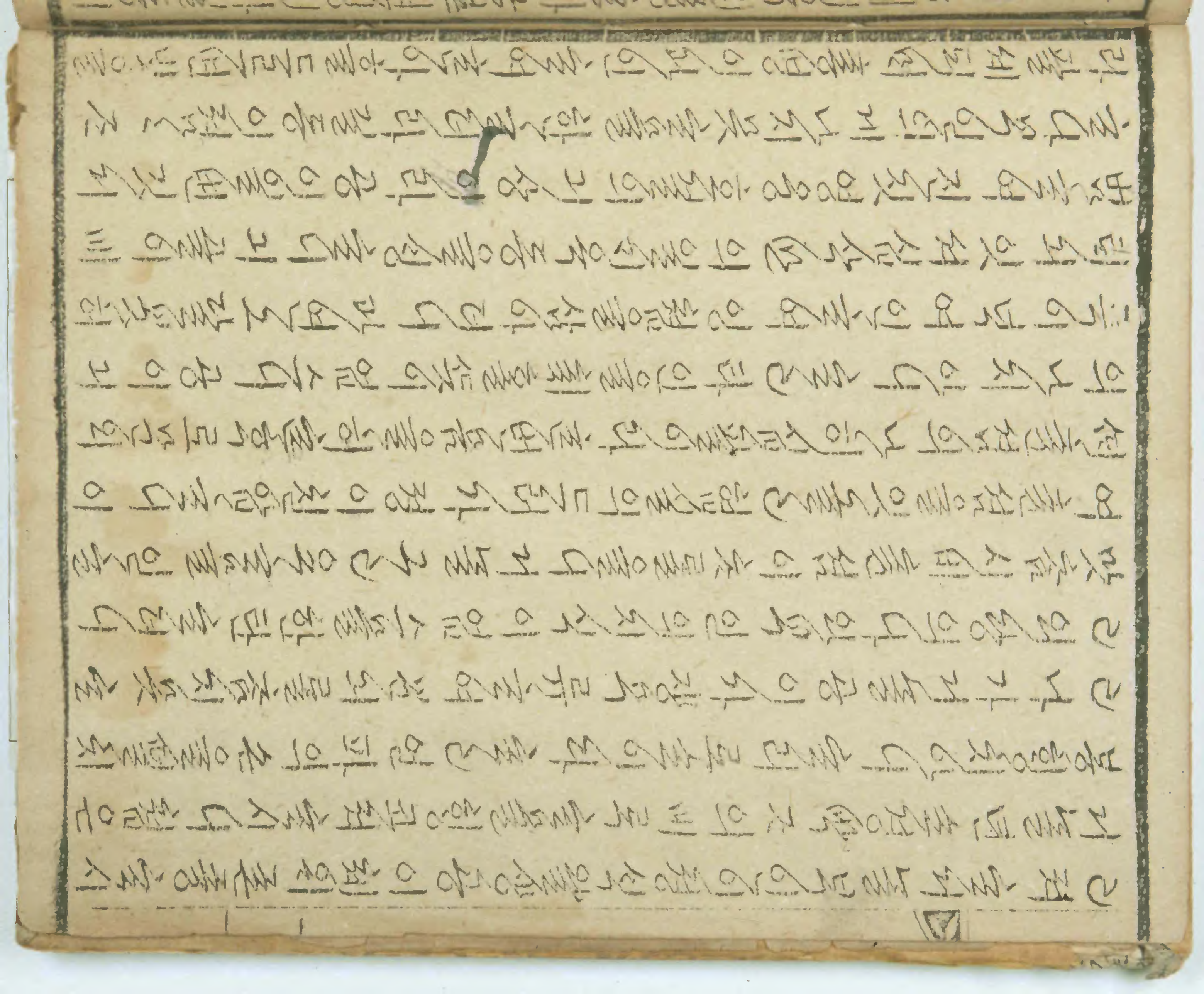
洪吉童傳

48
14

48
44

홍길동전 전지단

화셜됴션국 세종됴시졀의ᄒᆞᆫ쇠생이ᄀᆞ시니셩
은홍이오명은뫼라디ᄀᆞ명문ᄂᆡ죽으로ᄉᆞ년등과
ᄒᆞ여벼ᄉᆞᆯ이니ᄌᆞ관셔의니르미물망이됴야의웃
듬이오총ᄒᆞᆫ졈ᄭᅴ ᄒᆞ기로일흠이일국의진동ᄒᆞ더
라일즉두아ᄃᆞᆯ을두어시니일ᄌᆞᄂᆞᆫ일흠이인형이
니텽실뉴시ᄉᆞ셩이오일ᄌᆞᄂᆞᆫ일흠이길동이니시
ᄇᆡ춘졈의ᄉᆞ셩이라션시의공이길동을나ᄒᆞᆯᄭᅴ의
일몽을어드니문득뇌졍벽녁이진동ᄒᆞ며청룡이
ᄉᆞ염을ᄒᆡ ᄉᆞ리ᄂᆞᆫ공의ᄭᅴ행ᄒᆞᆯ여다라ᄃᆞᆯ되ᄂᆞᆯ나
ᄭᅴ다르니일쟝춘몽이라심총의ᄃᆡ희ᄒᆞ여셩작ᄒᆞ
되니이제룡몽을어더시니반ᄂᆞᆫ시지ᄒᆞᆫᄌᆞ식을나
흐리라ᄒᆞᆯᄂᆞᆫ즉시니당으로드러가니뷔인뉴시니
러ᄲᅳ거ᄃᆞᆯ공이흔연이그육ᄉᆞ롤닛고러졍이친압



통ᄒᆞ니공이 더욱 외ᄎᆞᆼᄒᆞ니 근본 천상이라 길동이
비양ᄒᆞ부ᄒᆞ형ᄒᆞ면 문득 쑤지쳐 못ᄒᆞ게 ᄒᆞ니 길동
이 십세 넘도록 감히 부형을 부르지 못ᄒᆞᆫ 비복 등
이 쳔ᄒᆡᄒᆞ ᄆᆞᆯ 쑥ᄉᆞᆯ 등한ᄒᆞ여 심ᄉᆞ를 칭치 못ᄒᆞ더니
ᄎᆞ구 월상 간을 당ᄒᆞ니 병월은 조옥ᄒᆞᆫ 청풍은 소
ᄉᆞᆯᄒᆞ여 사름의 심회를 돕ᄂᆞᆫ 지타 길동이 셔당의 셔
글을 긔라가 문득 셔안을 밀치ᄂᆞᆫ 란왈 대장뷔 세상
의 나ᄂᆡ 공명을 못 맛지 못ᄒᆞ면 찰아리 병법을 외와
대장 닌을 요하의 맛기 ᄎᆞᆫ 동정 셔별 ᄒᆞ여 국가의
지공을 세우ᄂᆞᆫ 일홈을 만ᄃᆡ 의 맛니 이 장목의 괘시
라 나ᄂᆞᆫ 엇지ᄒᆞ여 일신이 젹막ᄒᆞᆫ 부형이ᄂᆞ 시되
ᄒᆞ부ᄒᆞ형을 못ᄒᆞ니 심장이 터질지라 엇지 동한치
아니리오 ᄒᆞᆫ 말을 맛ᄎᆞ며 뜰의 나려 검술을 공부
ᄒᆞ더니 맛ᄎᆞᆷ 공이 또 ᄒᆞᆫ 월식을 구경ᄒᆞ다가 길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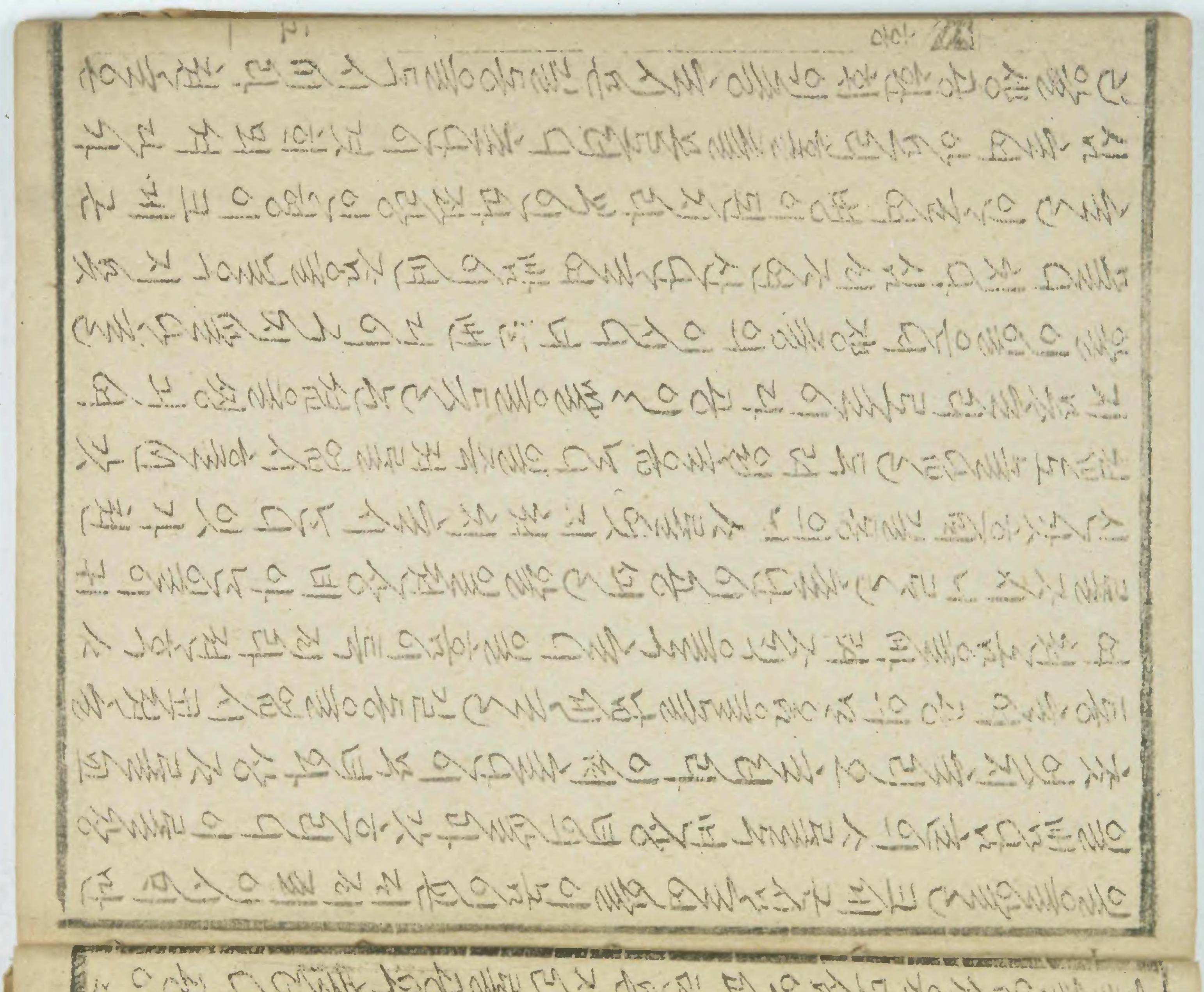
비회ᄒᆞ믈ᄆᆞᆫ즉시ᄆᆞᆯ너ᄆᆞᆫ왈비ᄆᆞ슴흥이ᄂᆞ셔야
심ᄃᆞᆫ록 잠을ᄌᆞ지아니ᄒᆞᆯᄂᆞᆫ다길동이ᄉᆞᆼ졍ᄀᆡ왈ᄉᆞᆫ
인이ᄡᅳᆺ춤월ᄉᆡᆨ을사랑ᄒᆞᆯ미여니와ᄃᆡ개하ᄂᆞᆯ이만
ᄀᆞᆯ을너시ᄆᆡ오ᄉᆡᆨ사ᄅᆞᆷ이ᄀᆡᄒᆞᆯ오나ᄉᆞᆫ인의게니르
러ᄂᆞᆫ지ᄒᆞᆯ오ᄯᅡ업ᄉᆞ오니엇지사ᄅᆞᆷ이라ᄒᆞᆯ오리잇
가공이그ᄆᆞᆯ을짐작ᄒᆞᆯ나짐즛ᄎᆡᆨ왈비ᄆᆞ슴ᄯᅡᆯ일ᄂᆞᆫ
길동이ᄭᅴ비ᄂᆞᆫ올ᄉᆞᆫ인이평ᄉᆡᆼ셜운ᄯᅡᄂᆞᆫ대감졍ᄭᅴ
로당ᄂᆞᆫᄒᆞᆫ은남ᄌᆡ되여ᄉᆞ오ᄆᆡ부ᄉᆡᆼ모휵지은이깁
ᄉᆞᆷ거ᄂᆞᆯ구부친을ᄇᆡ친이라ᄆᆞᆺᄒᆞᆯᄂᆞᆫ구형을형이
라ᄆᆞᆺᄒᆞᆯ오니엇지사ᄅᆞᆷ이라ᄒᆞᆯ오리잇가ᄒᆞᆯᄂᆞᆫ눈ᄆᆞᆯ
을흘여단삼을ᄎᆡᆨ시ᄀᆡ놀공이쳥파의비록축은ᄒᆞᆯ
나만일구ᄯᅳᆺ을위로ᄒᆞᆯ면모음이ᄯᅡᆼᄌᆞᆫ홀가져이크
게ᄉᆞ지져왈저생가친ᄯᅡᆨ숙셩이ᄯᅡ단녀ᄯᅳᆫ이아니
여든비엇지ᄯᅡᆼᄌᆞᆫᄒᆞᆫ오ᄎᆞ후다시이련ᄯᅡ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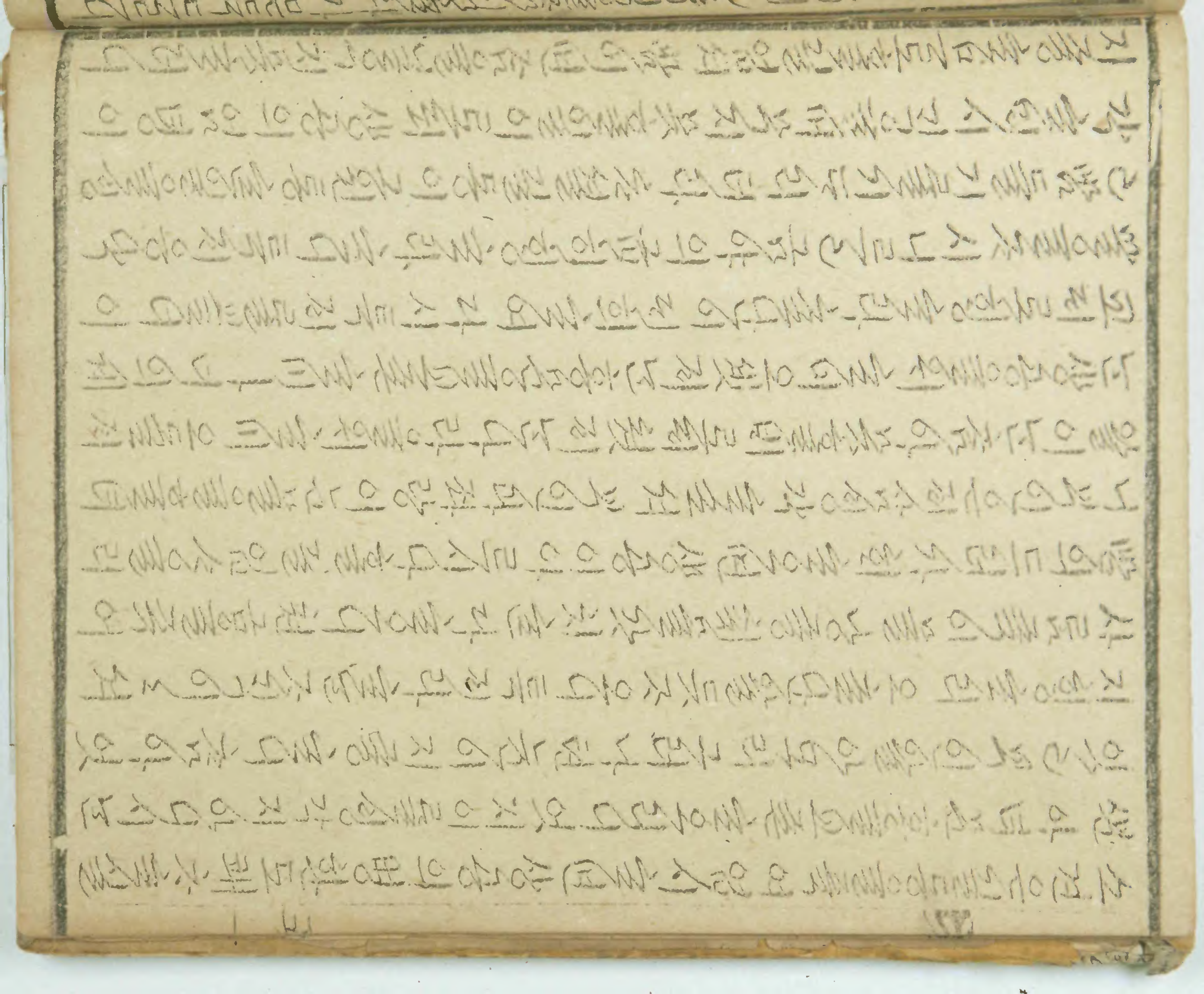
이ㄱ시면 안쳔의 용남ᄭᅴ 못ᄒᆞ리라ᄒᆞ니 길동이 감아
일언을ᄂᆞᆫ 치못ᄒᆞ고 다만 복지유체셜이라 공이 명ᄋᆞᆯ
여 물너가라ᄒᆞ거ᄂᆞᆯ 길동이 침소로 도라와 ᄉᆞᆯ하ᄒᆞᆷ을ᄭᅴ
지 아니ᄒᆞ더라 길동이 본ᄃᆡ 죄되과 인ᄒᆞ고 도랑이 활발
ᄒᆞᆫ치라 ᄆᆞ음을 진쳥치 못ᄒᆞ여 뱀이 면ᄌᆞᆷ을 날우지 못ᄒᆞ
더니 일ᄂᆞᆫ은 길동이 어ᄭᅴ 침소의 강을ᄯᅴ 알소 죄로 친으
로 더불러 전셩 분분이 좋ᄒᆞ여 금세 의로 죄되오니 은혜망
극ᄒᆞ온 지라 구러나 소ᄌᆞ의 팔ᄌᆡ 긔ᄆᆡᆨ ᄒᆞ여 쳔ᄉᆞᆫ 몸이 되오
니 품은 한이 깁ᄉᆞ온지라 장뵈 세상의 쳐ᄒᆞ여 남의 쳔
되ᄭᅴ 두ᄭᅴ 불가ᄒᆞ온지라 소죄ᄌᆞ연 되오을 억제치 못ᄒᆞ
여 못진ᄉᆞᆯ하ᄅᆞᆯ 엇나려 ᄒᆞ오니 복망 못진은 소ᄌᆞ를 ᄇᆞᆷ녀
치 ᄯᅡ로 시ᄂᆞᆫ 저 체를 보ᄒᆞᆼ ᄒᆞ소셔 그ᄋᆞᆫ 쳥파의 대셩 알
시생가 쳔셩이 너셩이 아니 여든 엇지 협ᄒᆞᆫ 마음을 빨ᄒᆞᆯ
여 어ᄭᅴ 안쟁을 살오ᄂᆞ오 길동이 저 알뵛날 장ᄒᆞᆼ의 ᄋᆞ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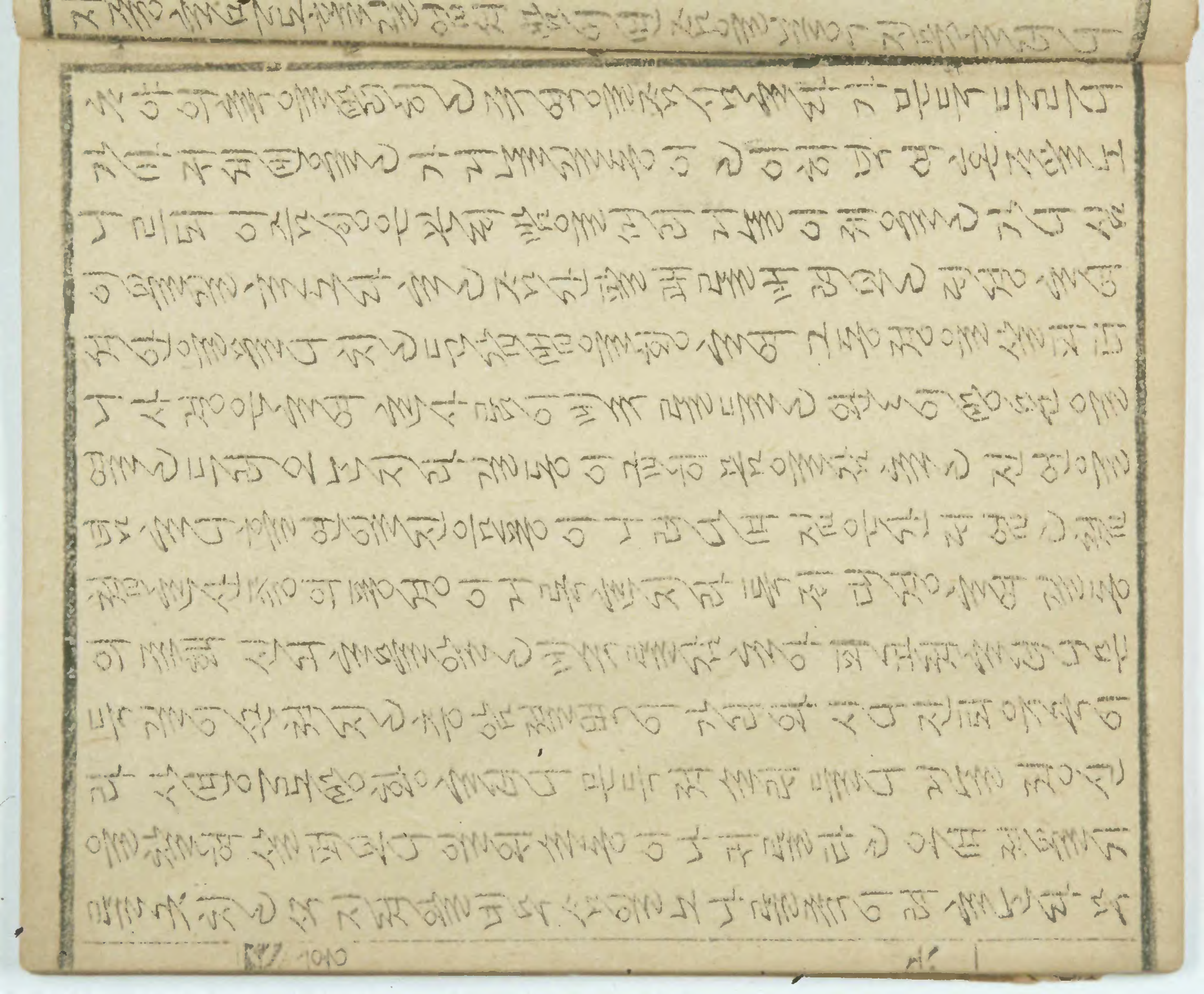
길산은 쳔샹이 ᄂᆞ로되시ᄆᆡ 삼쇠의 그어ᄉᆡ ᄒᆞᄂᆞ니 별ᄒᆞᆫ 으로
산의 드러샤 도ᄅᆞᆯ 닥가 아ᄅᆞᆷ다온 일홈을 후셰의 가젼ᄒᆞᆯ
여시니 슬희 그ᄅᆞᆯ 호츅ᄒᆞ여 셰샹을 버셔나려 ᄒᆞᄂᆞ니 모
친은 안심ᄒᆞ샤 후일을 기다리소셔 그ᄒᆞᆫ 곡산부의 형셰
을 보니 ᄉᆡᆼ승의 ᄒᆞᆼ을 날ᄂᆞᆯ 사홀ᄒᆞ여 우리 부ᄌᆞᄅᆞᆯ 원슈갓치
아ᄂᆞᆫ지라 큰 화ᄅᆞᆯ 닙을가 ᄒᆞ옵ᄂᆞ니 부친은 속히 나가올
념녀치 마로셔 ᄒᆞᄂᆞ니 그어ᄉᆡ ᄯᅩ 술을 ᄒᆞ여 ᄒᆞ려라 원ᄃᆡ 곡
산ᄋᆞᆫ 본ᄃᆡ 곡산 기ᄉᆡᆼ으로 ᄉᆡᆼ승의 ᄎᆞᆸ쳡이 되엿시니 일
홈은 ᄎᆞ단이라 가장 교만ᄒᆞ여 졔샹의 ᄌᆡ물을 탐ᄒᆞ며
공의게 ᄎᆞᆷ소ᄒᆞ더니 이러므로 가ᄒᆞᆼ 쳬ᄌᆞ이 부족ᄒᆞᆫ 쟈 져ᄂᆞᆫ
으ᄃᆞᆯ이 업고 츈셤은 길동을 나아 ᄉᆡᆼ승이 ᄆᆡ양 귀히 녁이
믈셔ᄂᆞᆫ 총의ᄋᆞᆼ으로 ᄒᆞ여 업시ᄒᆞᆷ을 도모ᄒᆞ더니 일은 흉계ᄅᆞᆯ
싱각ᄒᆞ고 무녀ᄅᆞᆯ 쳥ᄒᆞ여 왈 나의 일신을 평안케 ᄒᆞ믄
이 곳 길동을 업시ᄒᆞ기의 잇ᄂᆞᆫ지라 만일 나의 소원을 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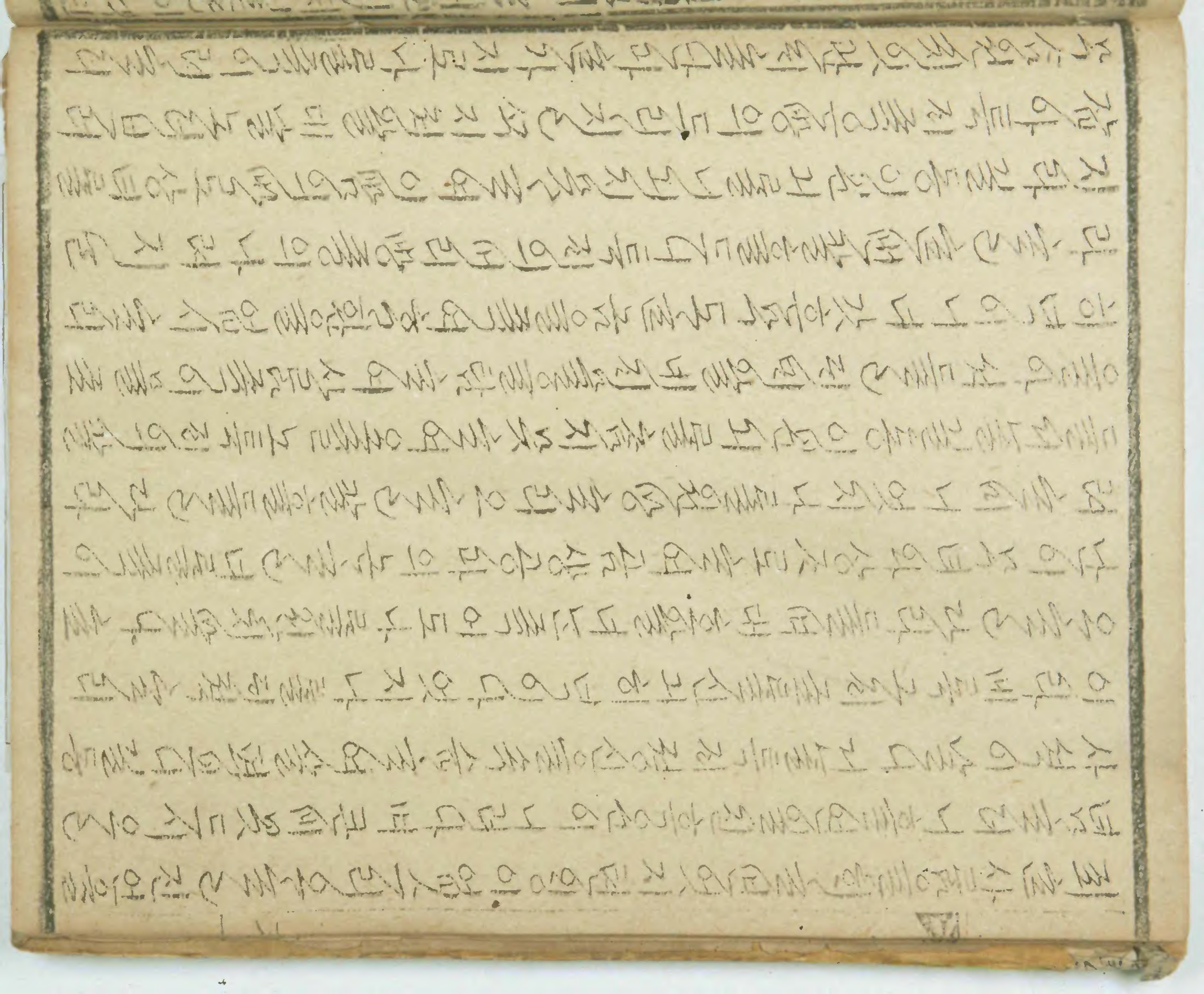
우연도은혜를혹히잡히리라 ᄒᆞ니무비듯ᄒᆞᆫ깃거리
알지금흥인문맛괴일등관상비이시니사름의상을
ᄒᆞᆫ번요면젼혹걸홍을관단ᄒᆞᆫ니이사름을청ᄒᆞ여
숙원을ᄌᆞ시니르ᄃᆞᆫ생공괴쳔거ᄒᆞ여젼혹ᄉᆞ을ᄇᆞᆫ다시
ᄂᆞᆫ ᄒᆞ면생공이필연되혹ᄒᆞ샤그ᄋᆞ회를엽시콕쳐ᄒᆞ시
리니그ᄯᅢ를라여ᄎᆞᄂᆞᆫ ᄒᆞ면엇지묘계아니리잇ᄂᆞᆫ쵸난
이대희ᄒᆞ여 번쳐은ᄌᆞ우ᄉᆞᆸ냥을주면상ᄌᆞ를청ᄒᆞ여
우라ᄒᆞ니모비하 직ᄂᆞᆫ가니라잇흔날공이니왕의드
러와부인으로러브러길동의비범ᄒᆞᆷ을ᄀᆞᆺ그ᄆᆞ며라
만쳔싱이ᄆᆞᆯ한탄ᄒᆞᄂᆞᆫ정히말ᄉᆞᆷ ᄒᆞ러ᄆᆞᆫ두ᄒᆞᆫ녀지
드러와당하의문안ᄒᆞ셔ᄂᆞᆯ공이ᄂᆞᆫ이이녁여문왈그
되ᄂᆞᆫ엇더ᄒᆞᆫ녀지안되무ᄉᆞᆷ일노왓ᄂᆞᆫ고ᄀᆞᆺ되알쇼인
우완상ᄒᆞ시르일ᄉᆞᆷ더니맛ᄎᆞᆷ생공문하의니르러ᄂᆞ
니이타공이ᄎᆞᆺ언을듯ᄂᆞᆫ길동의니ᄉᆞ를ᄒᆞᆫ왈ᄂᆞᆫ젼ᄒᆞ여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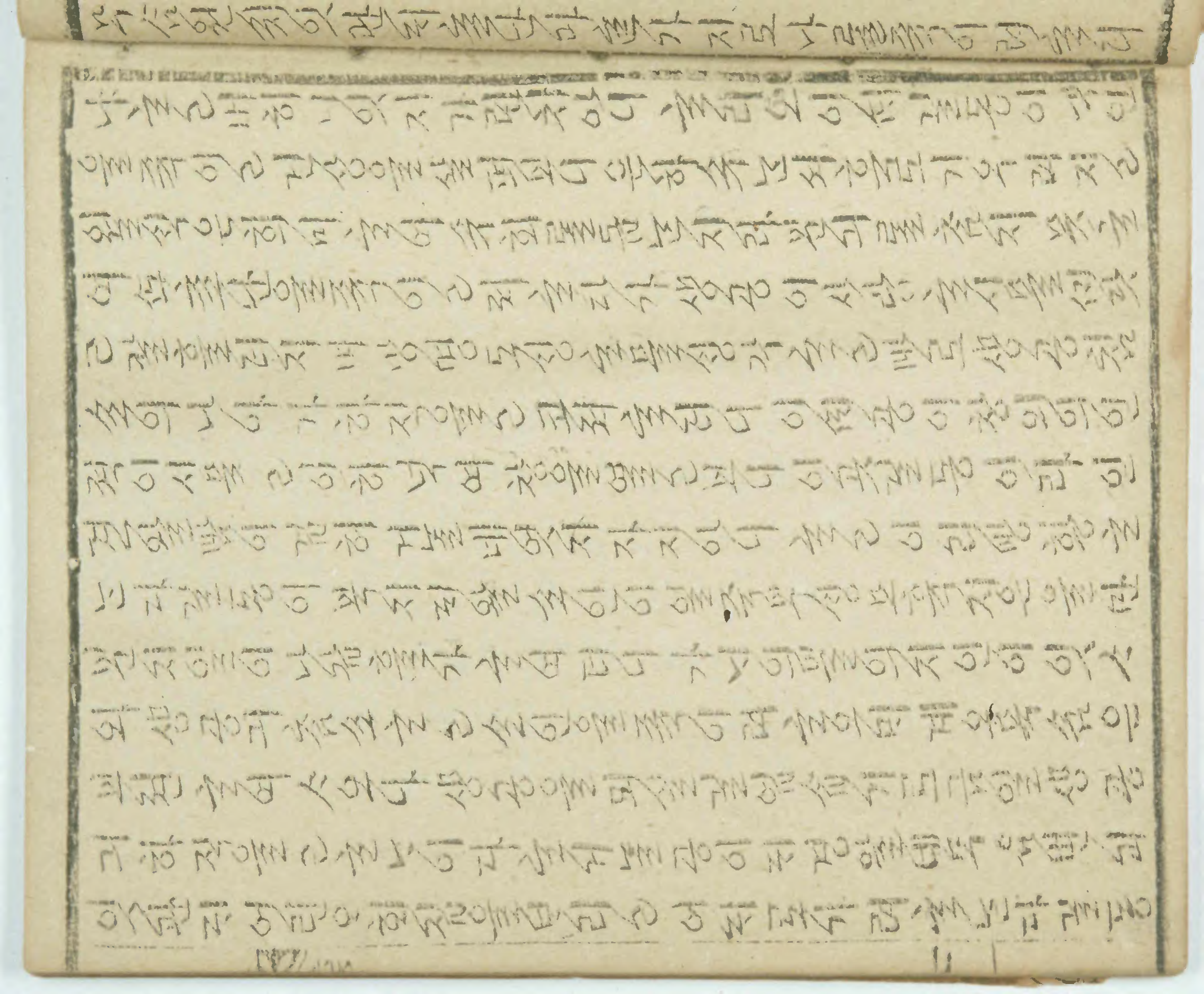
시ᄂᆞᆯ의되니 상뎨 이우ᄒᆡ요ᄒᆞ가 ᄒᆞᄂᆞ니 ᄇᆡ앎에 공ᄌᆞ의 ᄉᆡᆼ
을보니 쳔ᄉᆞ여ᄋᆞᆼ이오 일졔ᄒᆞᆷ을 이로ᄒᆞ야 ᄲᅡᆫ지 체욕
족ᄒᆞ오니 다르ᄇᆡ녀 ᄂᆞ엽ᄉᆞᆯ 가ᄒᆞᄂᆞ이다 ᄒᆞᄂᆞᆫ ᄇᆞᆯ을 ᄂᆡᄂᆞᆫ
켜ᄒᆞ라 가ᄒᆞ져ᄒᆞ여 ᄇᆞᆯ광ᄒᆞ복인히 가장ᄋᆞᆫ 하ᄂᆞᆯ여 앎ᄃᆞᆯ
습ᄲᆞᆯ을ᄲᅡ드ᄒᆡ로 나르라 상뎨ᄲᅡ지못ᄒᆞ여 좌우로 ᄂᆞᆯᄃᆞ다
친ᄋᆞᆫ 앎 공ᄌᆞ의 상을고ᄋᆞᆫ 족ᄒᆞᄒᆞᆯ중의 조ᄒᆡ 흑중ᄒᆞᄂᆞᆫ 미
간의 산쳔 쳥과 연농ᄒᆞ오니 진짓 안ᄒᆞ의 과상이라 장
셩ᄋᆞᆫ 변장ᄎᆞ 보지화ᄅᆞ당ᄒᆞ오리니 ᄉᆡᆼ광은 ᄉᆞᆯ피ᄂᆞᆫ
셔공이 쳥파의 경은ᄒᆞ여 복ᄃᆞ ᄲᅡᆫ향의 모음을 졍ᄒᆞ고 앎
사ᄅᆞᆷ의 팔ᄌᆞᄂᆞᆫ 동상기 어렵ᄉᆡ니와 너ᄂᆞᆫ 이ᄅᆞᆯ을 ᄂᆞ셜
치ᄲᆞᆯ다 당옥ᄒᆞᄂᆞᆫ 액간은 ᄌᆞ믈ᄌᆞ 어보너라 ᄎᆞᄒᆞ로공
이길동을 산쳥의 법을 게ᄒᆞᄂᆞᆫ 일동일쳥을 엄숙히 살
회다 길동이 ᄌᆞ일동ᄒᆞᆫ당ᄒᆞ이 당옥셜ᄉᆞ믈이외 지못ᄒᆞ나
ᄒᆞᆯᄒᆞᆯ업셔 ᄋᆞ각도감 액파 다ᄅᆞᆷ 지ᄒᆞᆫ를 공옥ᄒᆞ여니 공이 ᄌ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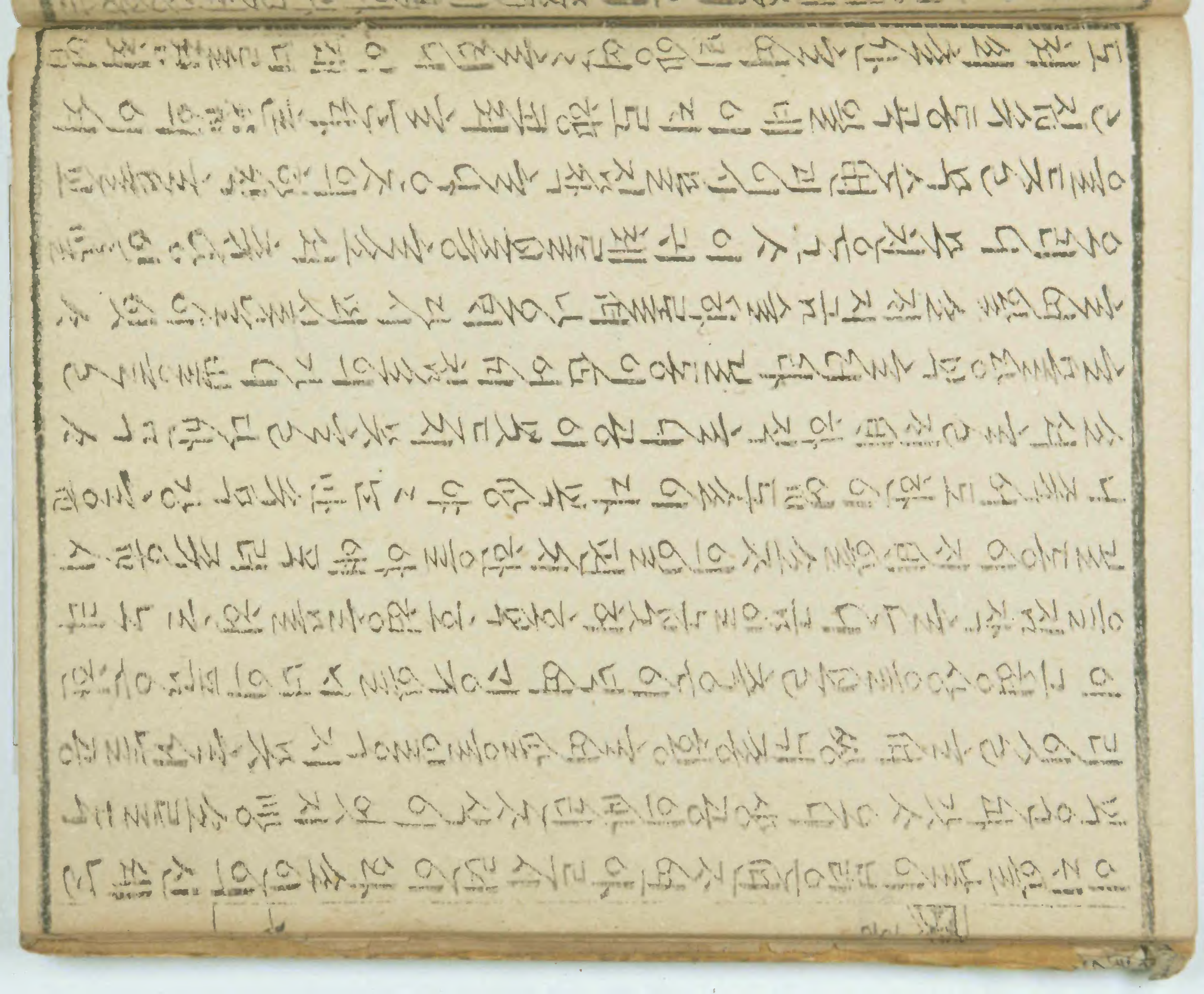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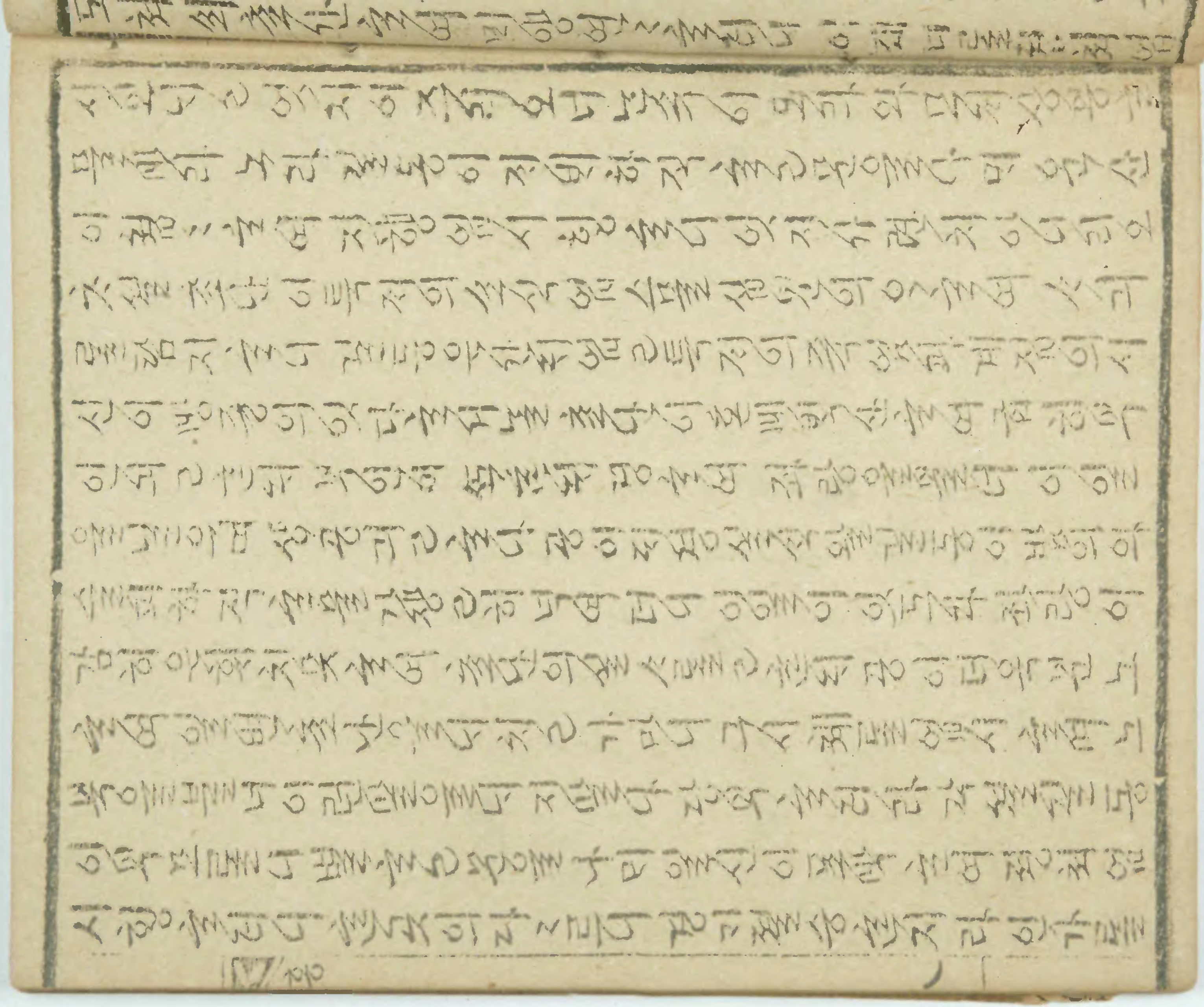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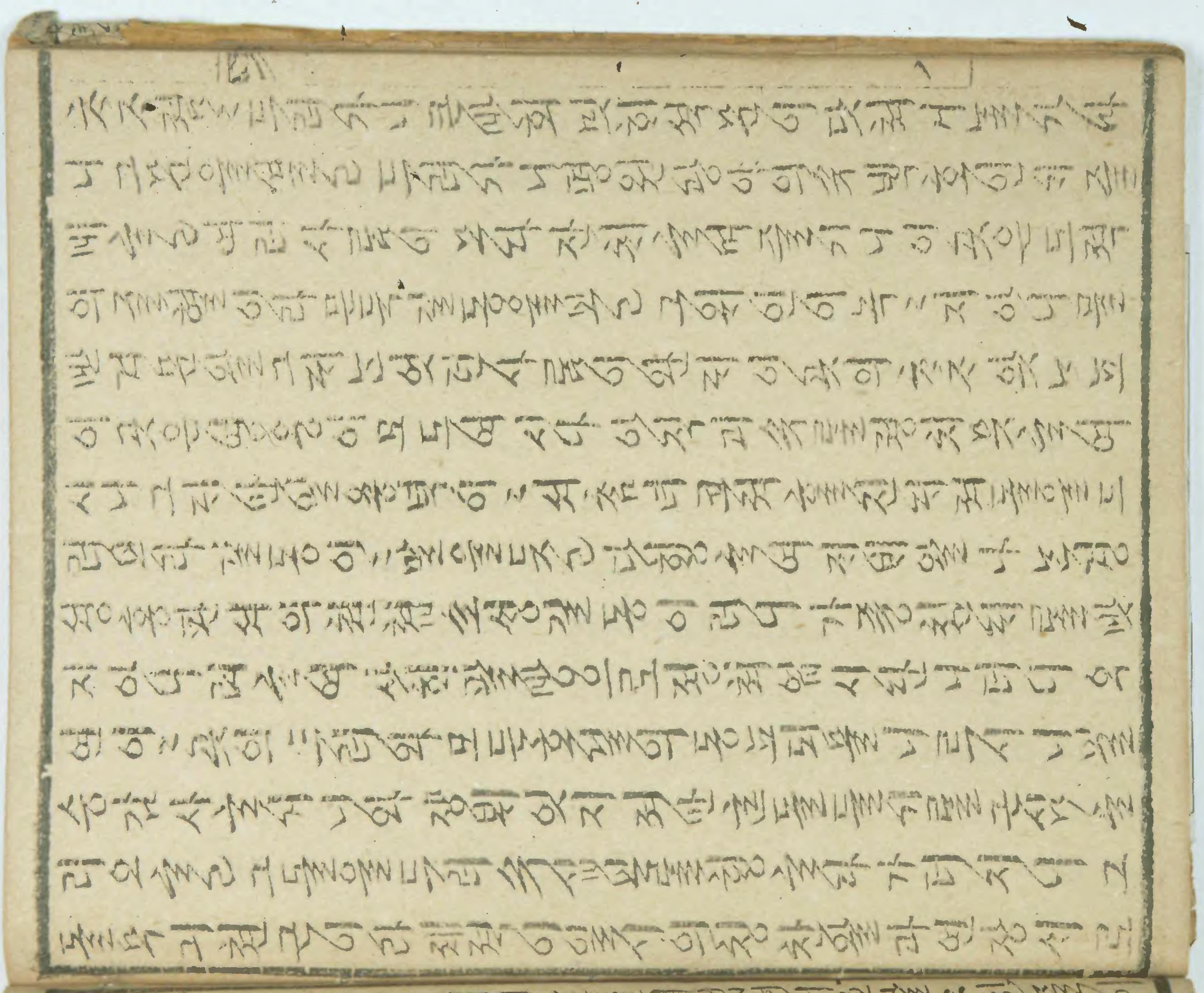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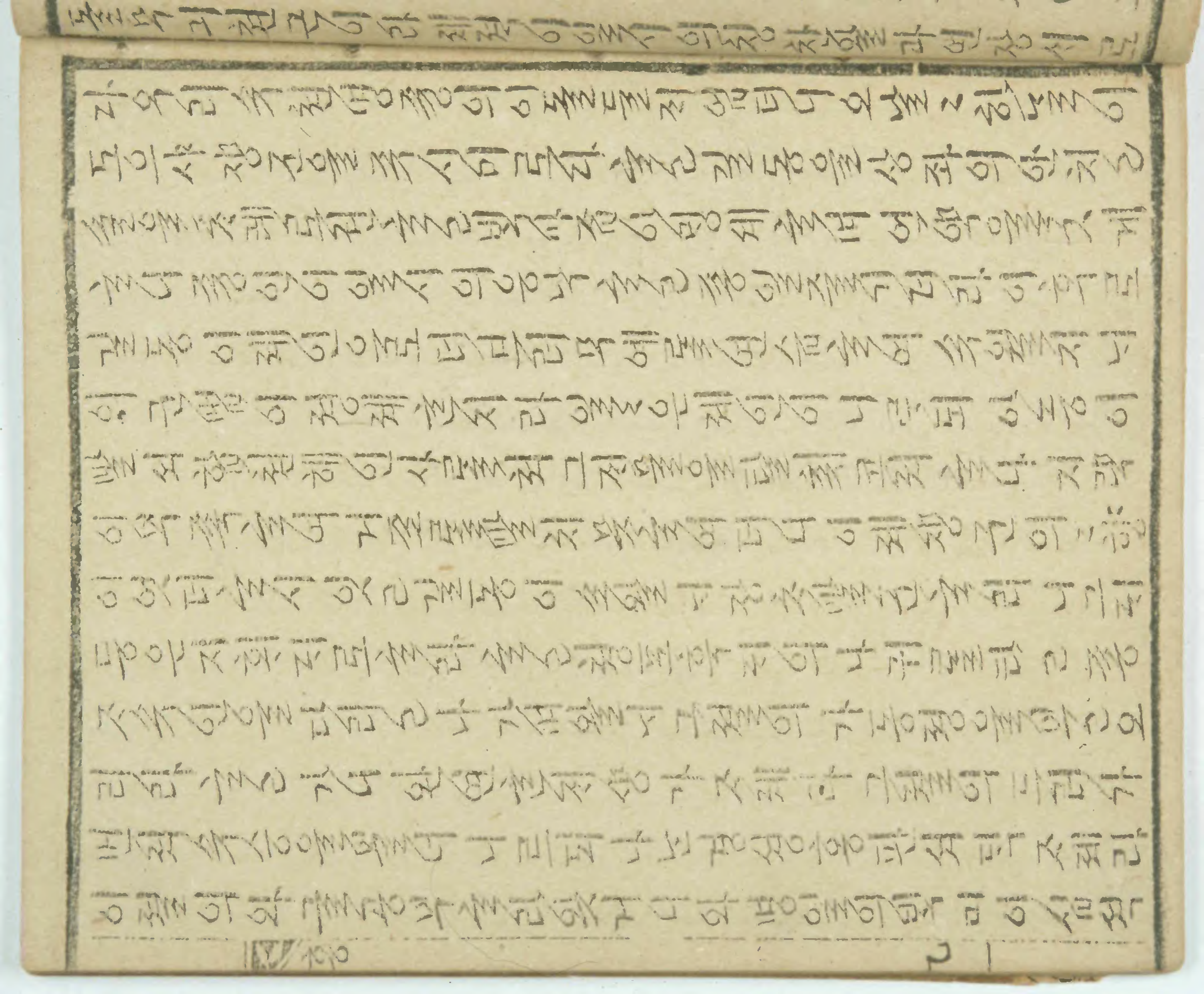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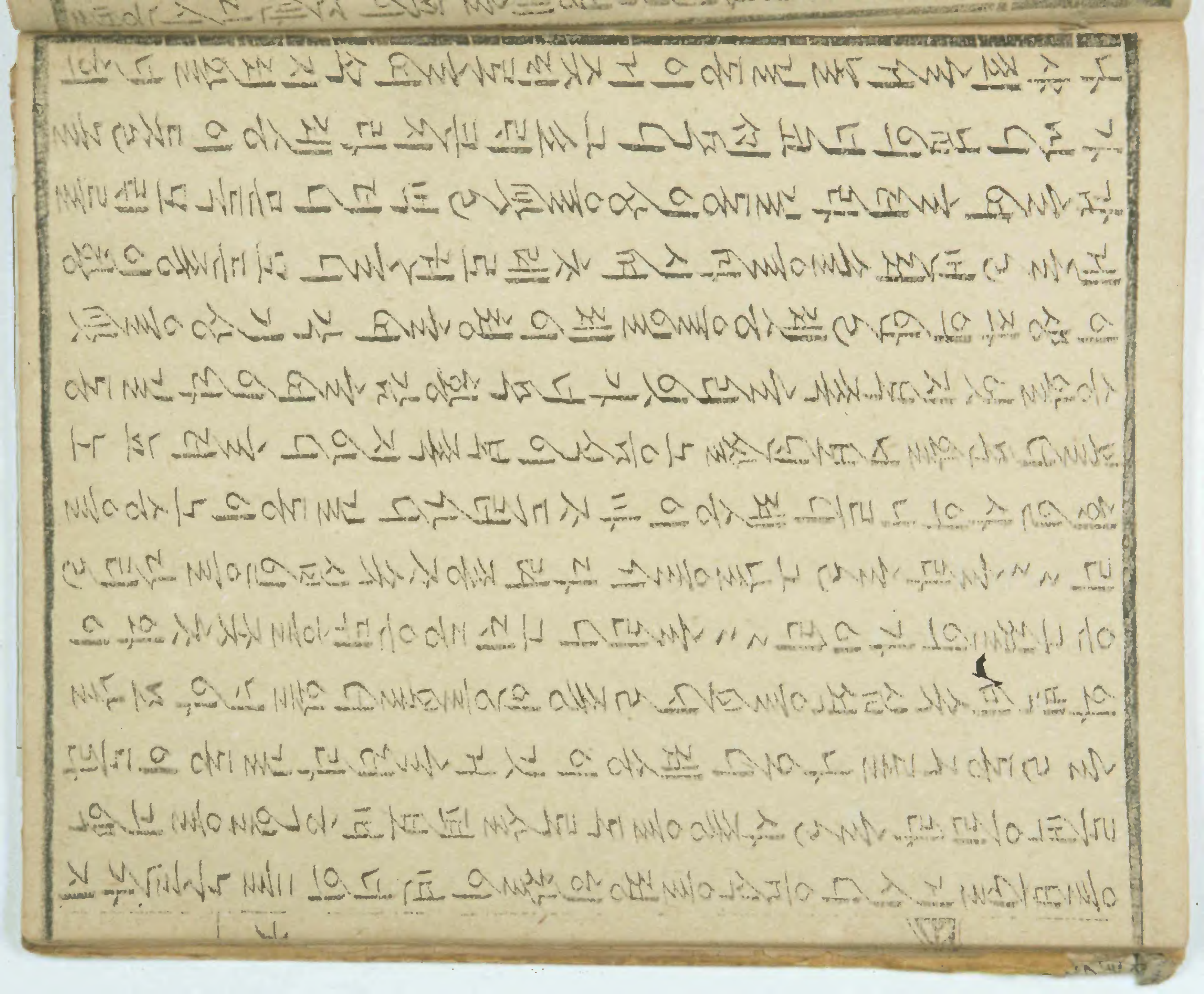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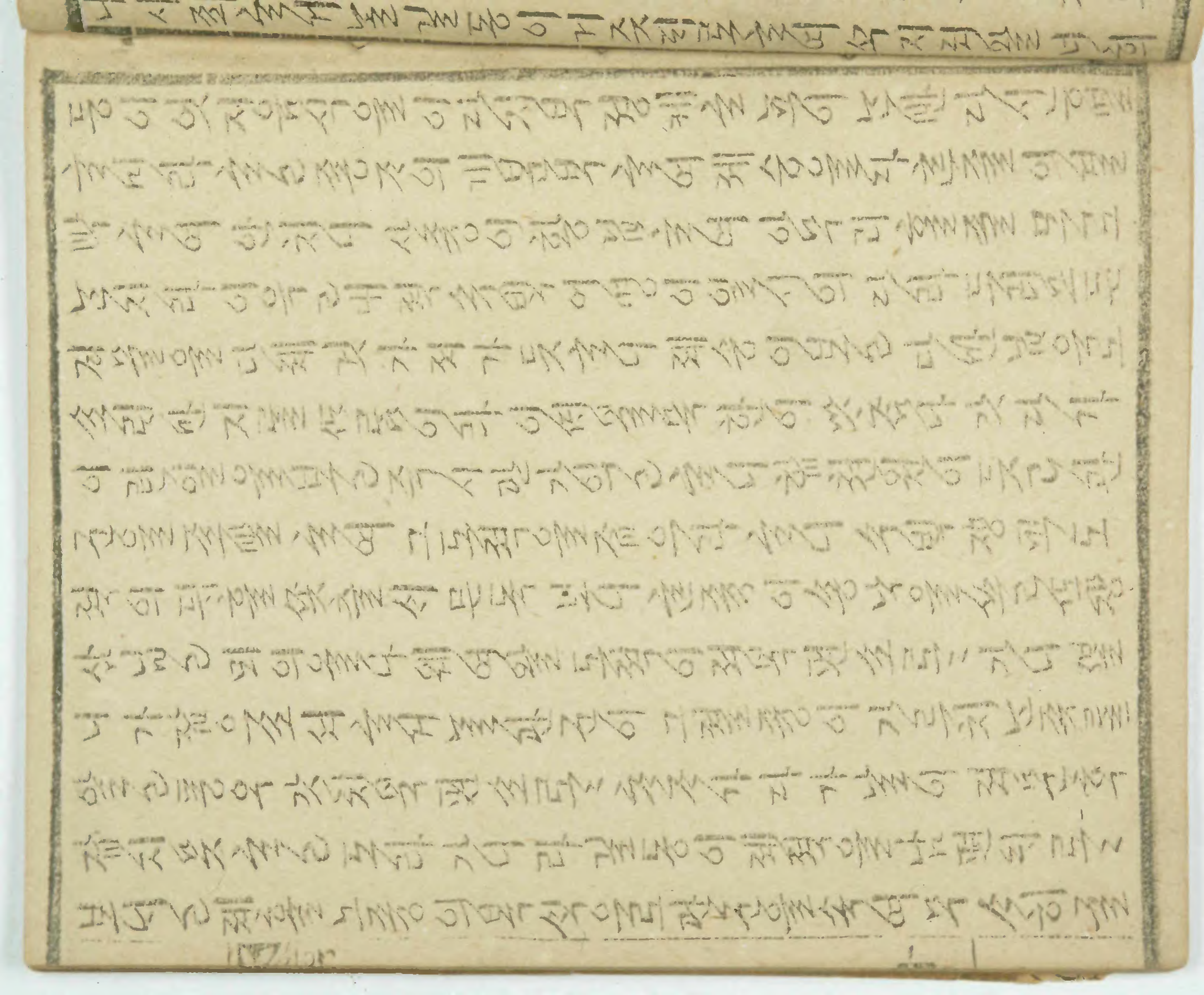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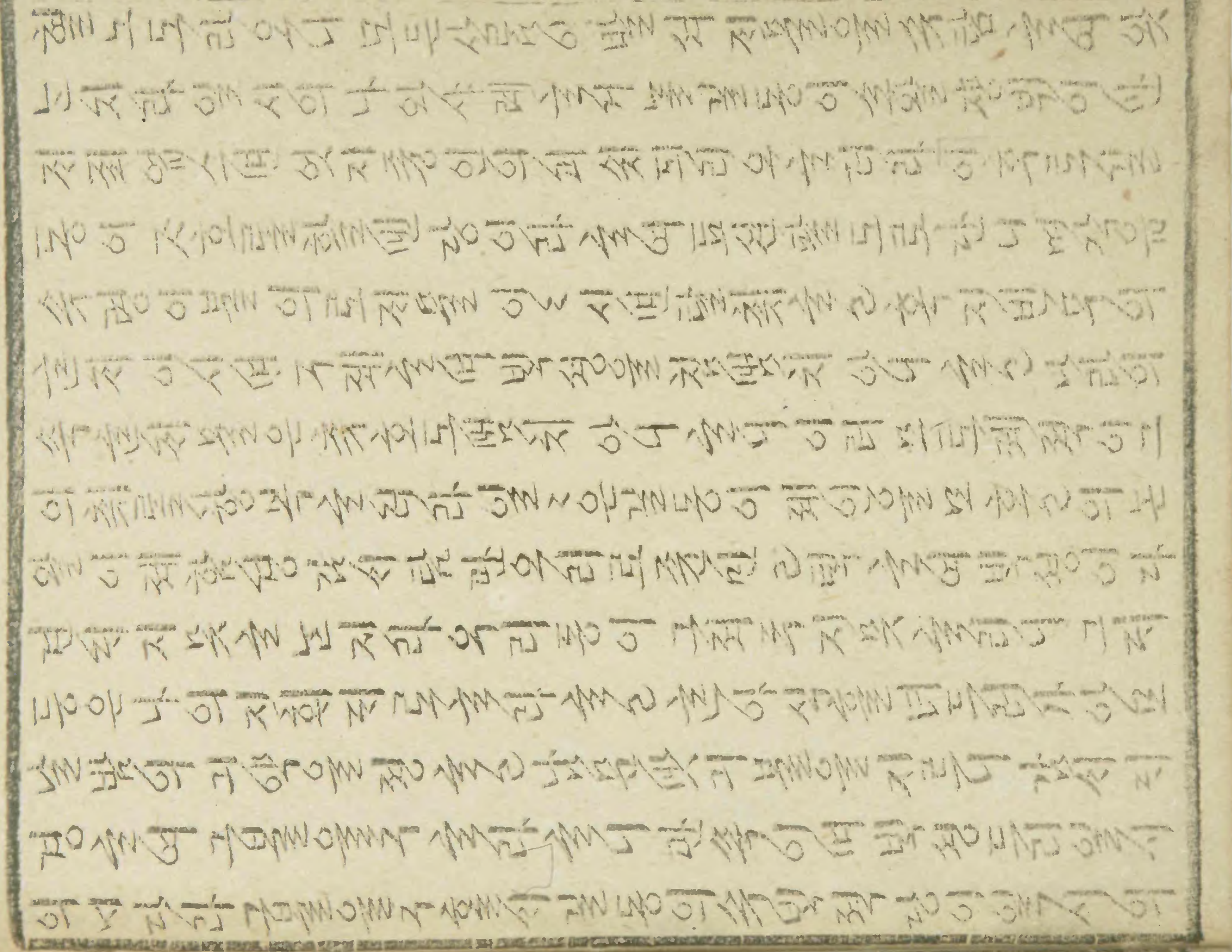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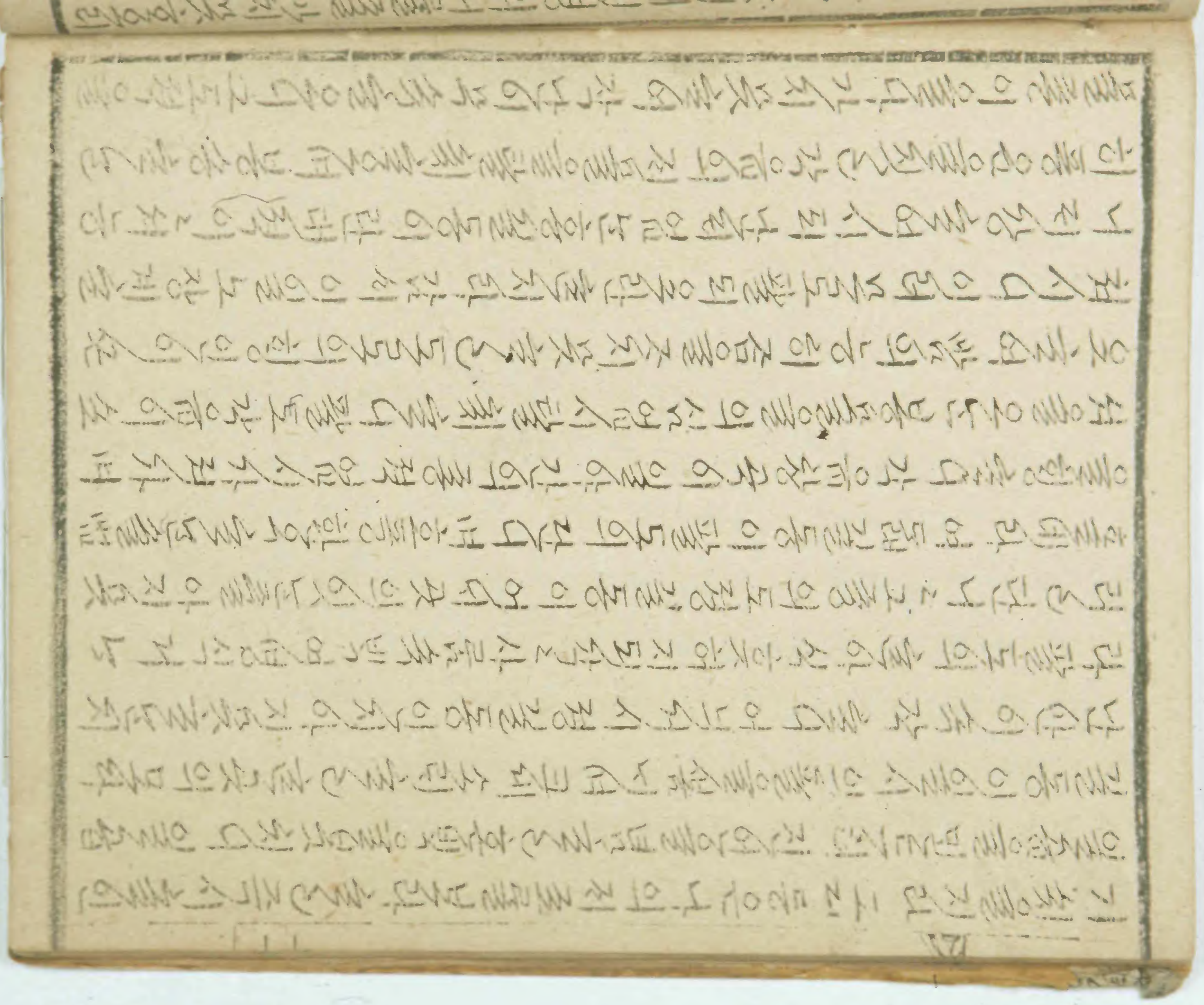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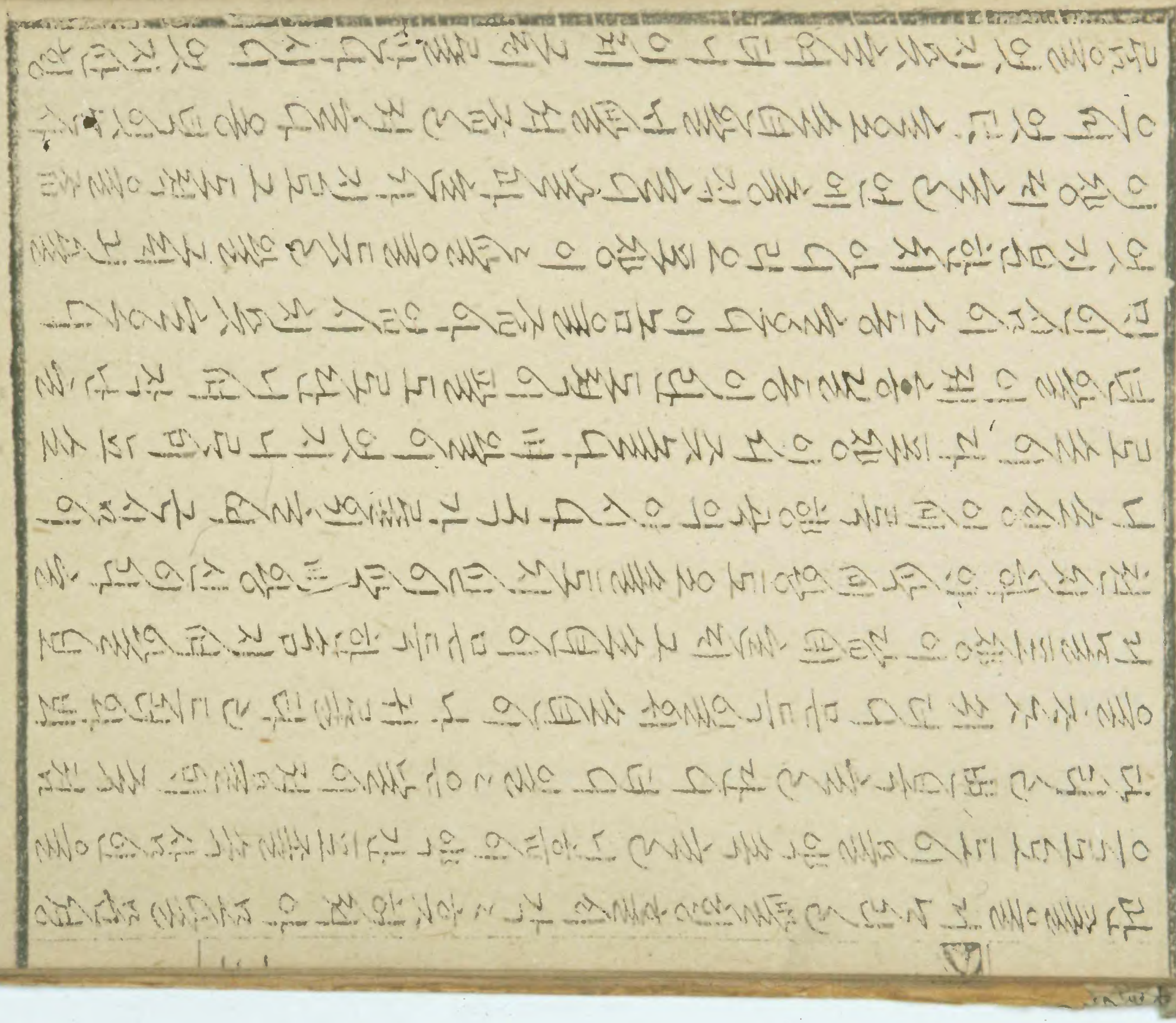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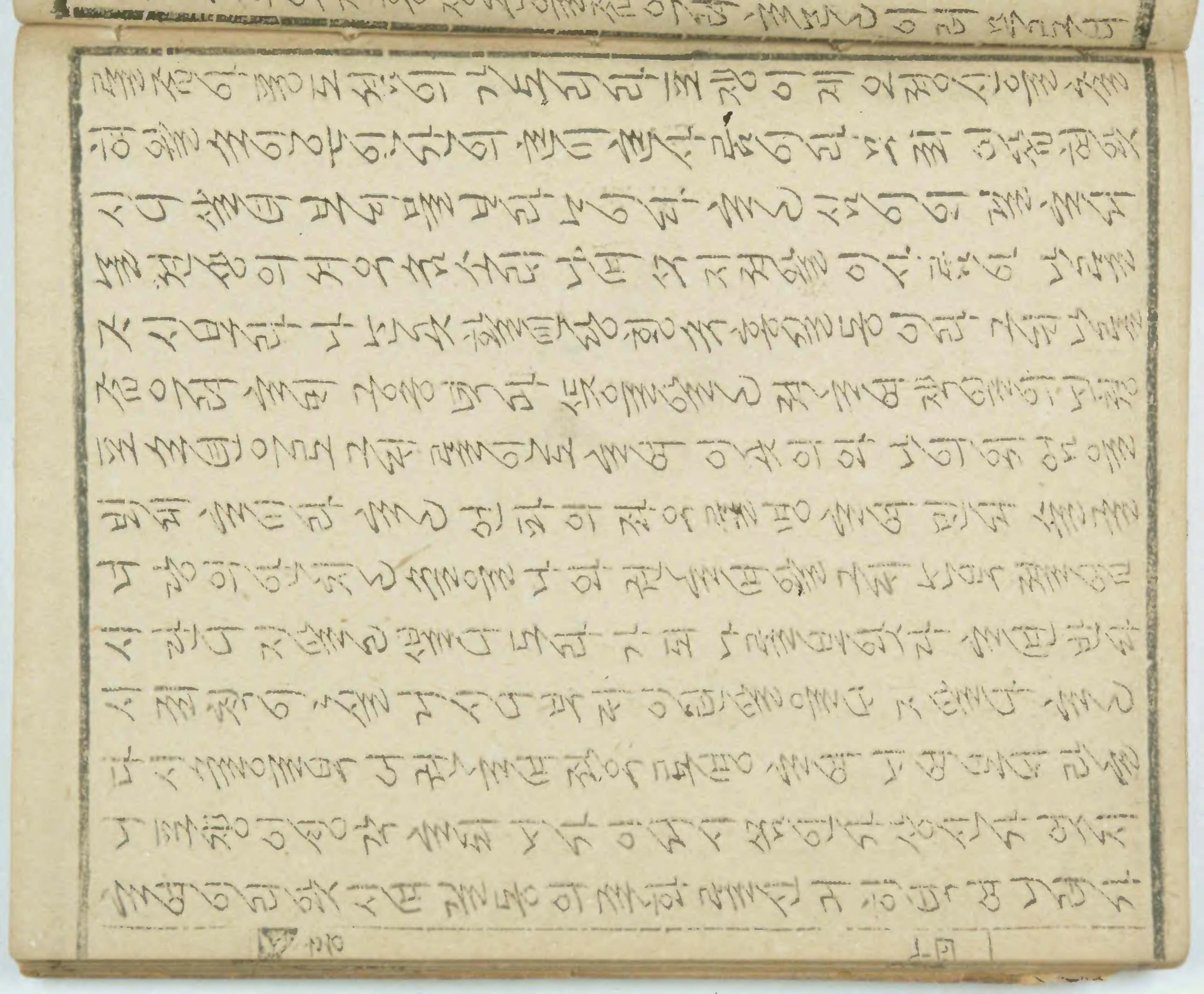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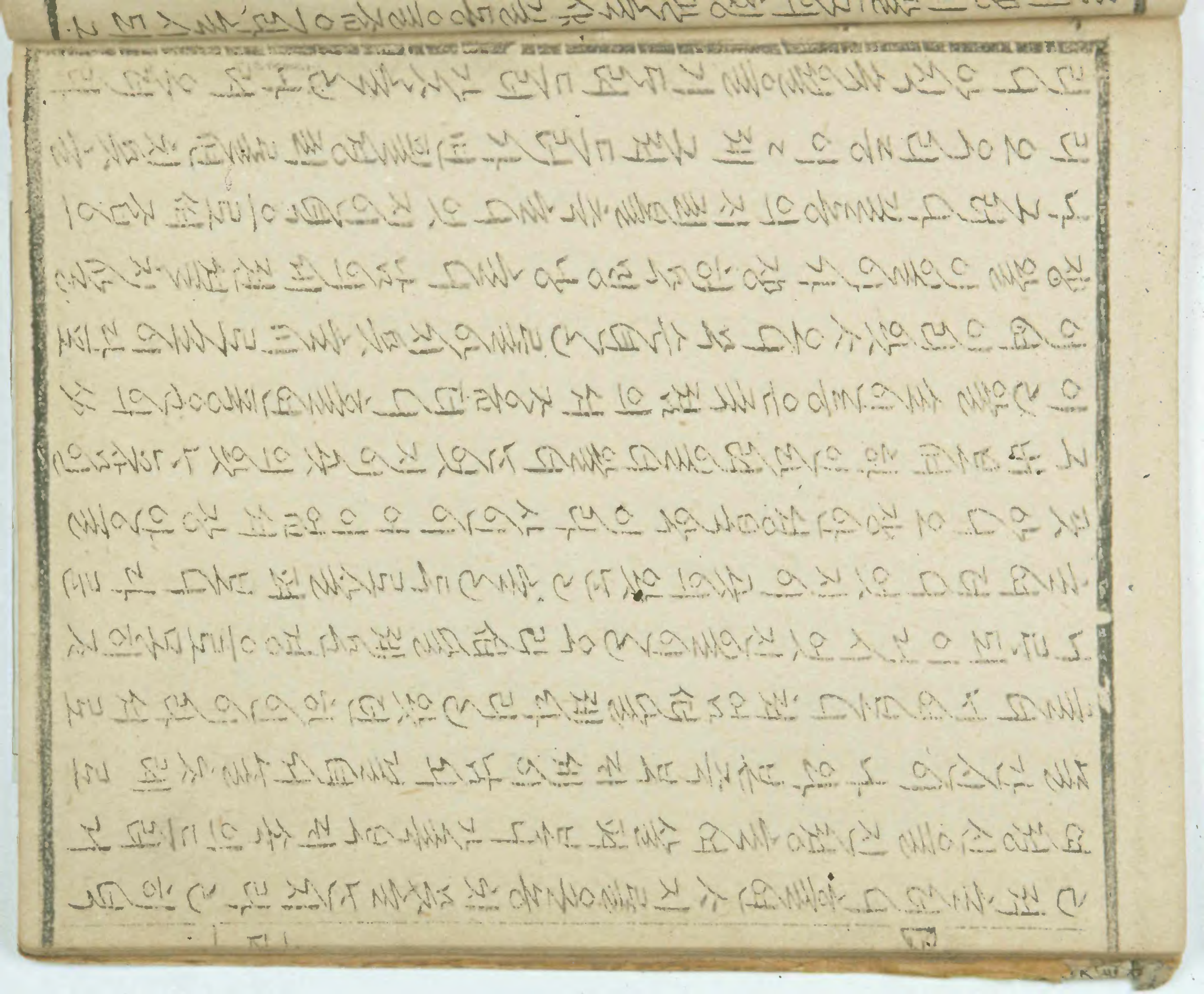
금지 못 홀 오면 장중 숫 어디 지성의 니 물품을 아지 못 홀 오면
니 북망 성생은 죄의 물권으로 금 쓸 수 금 여 되 단
생이 보시 ㄹ 대 성 ㅇ 홀 수 물 ㅇ 을 ㅇ 수 물 ㅇ 홀 ㅇ ㅇ ㅇ
팔도 장 제 를 ㅇ 홀 ㅇ 눈 치 리 여 ㅇ 홀 ㅇ 여 ㅇ 니 도 적
의 ㅇ 을 홀 ㅇ 이 라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보 시 ㄴ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적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아 ㅇ 리 신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시 ㅇ 도 적 홀 ㅇ 이 ㄴ 시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어 려 ㅇ 홀 ㄴ 과 ㅇ 적 ㅇ 로 장 이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시 ㄴ 이 쇠 ㅇ 적 ㅇ 로 장 ㄴ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ㅇ ㄴ 고 도 적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제 과 ㅇ 로 장 ㅇ 이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사 ㄱ 뉴 하 말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홀 ㅇ



이 안니리오 만는 그리지 조롤아지 못ᄒᆞ니 그윽ᄒᆞᆫ곳
의 가시험ᄒᆞ자 ᄒᆞᆫ 사로 형ᄒᆞ더니 ᄒᆞᆫ곳의 니
르러 춤흔ᄲᅡ회 우희 올나 안주며 니르되 구리 힘을
다ᄒᆞ여 두ᄲᅡᆯ노 나롤 초나리치라 ᄒᆞᆫ 낭 쏫히 나아
안되 ᄒᆞᆯ 포쟁이 셩작ᄒᆞ되 제아 무리 옹녁이 ᄀᆞ신 들
ᄒᆞᆫ면 ᄒᆞ면 제엇지 아니 ᄯᅥ러치리 우ᄒᆞᆫ 평셩 힘을 다
ᄒᆞ여 두ᄲᅡᆯ노 리 우ᄉᆞ니 그ᄉᆞ년이 무득 도라 안주며 왈
구리 진짓 쟁셔로라 비여러 사ᄅᆞᆷ을 시험ᄒᆞ되 나ᄅᆞᆯ
올동ᄒᆞᆫ노 리 엄터니 그리의 제 치이여 우쟁이 올년
ᄃᆞᆺᄒᆞᆫ도라 구리 나롤 ᄯᅡ라 우면 길동을 좀 우리라 ᄒᆞᆫ
쳡ᄂᆞᆫ ᄒᆞᆫ산곡으로 드러 가지 ᄒᆞᆯ 포쟁이 셩각ᄒᆞ되 나도
힘을 자랑ᄒᆞᆯ만 ᄒᆞ터니 오날져 ᄒᆞᆫ년의 힘을 보니 엇
지ᄒᆞᆯ 법지 아니리오 구리니 이곳 거지와 시니 혈ᄯᅡ져
ᄒᆞᆫ년 흔ᄌᆞ라도 길동 좀 기롤 근심ᄒᆞ리 우ᄒᆞᆫ 셩라 가

더니 그 춘년이 문득 돌쳐서 벼 앞이 솟이 길동의 글
혈이라 너 본쳐 프러 차탐 지홀쇠 시니 그뒤는 여쇠이
쇠기 두리라 포쟁이 모음의 ㄴ 심되다 샐니 좁아오물
당부 춘신 안 조더니 잉육신 홀연 산속으로 좃 추
십준 줄이 요란이 소리 지르며 나려오는 지라 포쟁
이 쳐 경 춘여 피 코쳐 춘더니 점ㄴ 갓가이와 포쟁을
결뿍 춘며 쓰지 져앞 네 포도쇠 쟁니 흡인타 우리 등이
지부왕 병을 바다 녀 룰 좁으러 앗다 춘신 철색으로
목을 올차 풍우 갓치 모라 가니 포쟁이 혼물 부체 술
여 안모를 줄 모도 보지라 춘 곳의 다ㄴ라 소리 지르며
쏠녀 안치 쇠 놀 포쟁이 정신을 가다듬어 치미러 보
니 중철이 광대 춘쇠 무추 춘황 건녁 서좌우의 나열
춘신 젼생의 일위 준왕이 좌답의 안조 여성앞 네오
마 팔무로 엇지 홍장 준을 좁으러 춘모신이러 무로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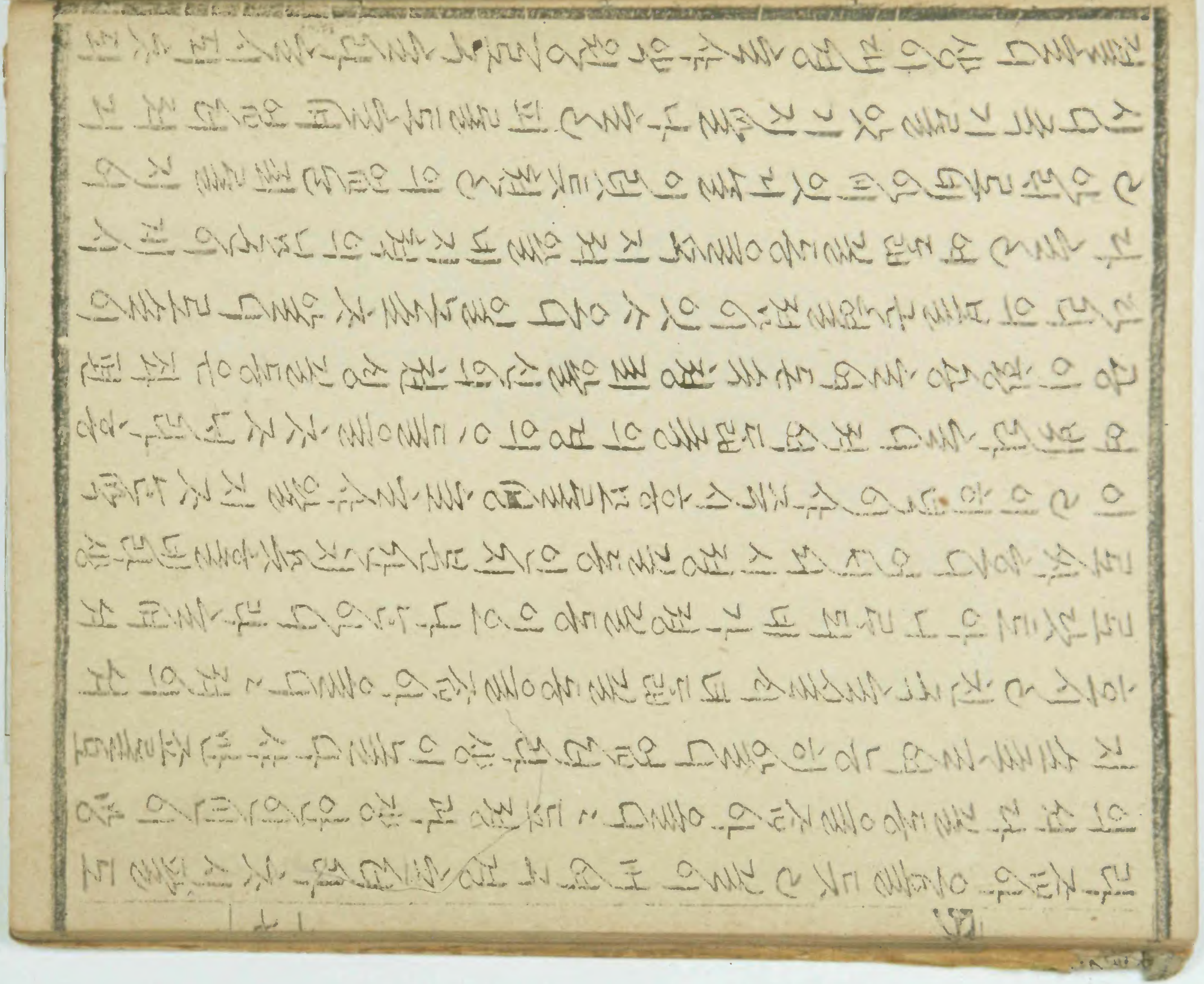
초시생이 팔도의 힝판 혹사 길동을 줍으라 혹시되고
변홰물 축혹여 쟁안대로 혹혹인도 타라 왕비 혹며
혹각음의 놈은 노코 쌍교도 타라 왕비 혹며 혹어 수의
모양을 혹여 각음 수령 좋탐관 우리 혹도 자를 믄 득
선참 후계 혹되 가어 수용 길동의 계문 이라 혹니생이
더욱 진노 혹사 알이 놈이 각도의 단니며 이런 작난을
혹되 아모도 잡지 못혹니 이를 장츳 엇지 혹리오 혹시도
삼용육성을 모와의 논 혹시 더니 연혹여 장계 오르니
다 팔도의 홍길동이 작난 혹는 장쳬라 생이 초례로 보
시고 크게 근심 혹사 좌우를 도라 보시며 문 알이 놈이
아바도 사름은 아니 오쳐 신의 작폐니 도신 종뉘 구돈 본
을 짐작 혹리오 일인이 혹쁜 죽 알 홍길동은 젼 남니
조판 셔홍 모의 셔조오 병죠 좌랑 홍인형의 셔쳬 오니
이제 급복 조를 나리 혹여 친문 혹시면 조연아르실 자혹

ᄂᆞ니다 생이 익노왈 이럴쌀을 엇지 이쳬야 ᄒᆞᆯᄂᆞᆫ타 ᄒᆞᆯ
시ᄂᆞᆫ 즉시 홍보ᄂᆞᆫ 동부로 나ᄉᆞᆨ ᄒᆞᆯᄂᆞᆫ 변쳐 인형을 좁
아 드려진 즉 ᄒᆞᆯ실 셔 련위진 노ᄒᆞᆯ샤 셔 안을 쳐 ᄀᆞᆯ 우샤
되 길동이 란도 젹이 녀의 셔쳬라 ᄒᆞᆯ니 엇지 금단치 아니
ᄒᆞᆯᄂᆞᆫ 그쳐 두어 즉 사의 대환이 되게 ᄒᆞᆯᄂᆞ 뇨 비 안일 잡아
드리지 아니 ᄒᆞᆯ면 녀의 부ᄌᆞ의 총호를 도라 보지 아니리
니 쎨니 잡아 드려도 션대 변을 업세 ᄒᆞᆯ라 인형이 황공
ᄒᆞᆯ여 변란 돈 ᄉᆞᆨ 왈 신의 쳔 ᄒᆞᆫ아이ᄂᆞ셔 일즉 사름을
죽이ᄂᆞᆫ 망명도 죽 ᄒᆞᆯ은 지ᄉᆞᆨ 변이 지나 오되 그 존망을 아
읍치 못ᄒᆞᆯ와 신의 늙은 아비 일노 인ᄒᆞᆯ여 신병이 위중
ᄒᆞᆯ와 병지 ᄌᆞᆯ젹이 온종 길동의 무도불측 ᄒᆞᆯ므로 셩 생
의 근심을 끼치오니 신의 죄 만ᄉᆞᆸ셕이 오니 복망 젼하
ᄂᆞᆫ 즈비 지틱을 드리읍셔 신의 아비 죄를 사ᄒᆞᆯ샤 집의 도
라 가ᄌᆞᆯ병 제ᄒᆞᆯ시면 신이 즉 기로뼈 길동을 잡아 신의

부ᄌᆞ의 죄를 속ᄒᆞ올가ᄒᆞᄂᆞ이다 생이 문파의 련심이
감동ᄒᆞ사 즉시 홍모를 사ᄒᆞ시고 인형으로 경상삼
ᄉᆞ를 제속ᄒᆞ사 왈성이 만일 감ᄉᆞ의 거구 엄ᄉᆞ면 길동
을 잡지 못ᄒᆞ올거시오 일년한을 정ᄒᆞ여 즉ᄂᆞ니 속이 좁아
두리라 ᄒᆞ시니 인형이 빅비 사은ᄒᆞ고 인ᄒᆞ여 하직ᄒᆞ
며 즉일 뿔힝ᄒᆞ여 감영의 도임ᄒᆞ고 각읍의 방을 붓
치니 이ᄂᆞᆫ 길동을 잘니ᄂᆞᆫ 방이라 기ᄉᆞ의 왈○사름이 세
상의 나미 오륜이 웃듬이오ᄃᆞ륜이ᄃᆞ시되 인의 비치 문
병ᄒᆞ여 놀이를 안치ᄆᆞ ᄒᆞ고 근무의 병을 쳐 역ᄒᆞ여
뿔ᄒᆞᆼ뿔ᄒᆞ고 되면 엇지 세상의 용납ᄒᆞ리오 우리아오
길동은 이런 일을 알ᄭᆞ 시니 스ᄉᆞ로 형을 ᄎᆞᄎᆞ와 사로
잡하라 우리 부친이 날노 뿔되 암아 병님을 속ᄒᆞ시
리 성생이 크게 곤심ᄒᆞ시니 내 죄악이 관영ᄒᆞᆫ치라
이러므로 나를 특별이 도박을 제속ᄒᆞ사 너를 잡아

드리라 ᄒᆞ시니 만일 즙지 못ᄒᆞ면 우리 홍문의 누리 청
덕이 일졸의 별ᄒᆞ리니 엇지ᄒᆞ리 오 분라ᄂᆞ니
아우ᄅᆞᆯ 동은 일ᄉᆞᆯ 싱작ᄒᆞ여 일즉 장현ᄒᆞ면 녀의 죄도
덜 날 거시오 일문을 보존ᄒᆞ리니 아지 못게라 녀ᄂᆞᆫ
번ᄉᆡᆼ 각ᄒᆞ여 조현ᄒᆞ라 ᄒᆞ엿더라 ○ 감시이 방을 각읍
의 붓치ᄂᆞᆫ 공ᄉᆞᄅᆞᆯ 젼펴ᄒᆞ여 길동이 조현ᄒᆞ기ᄆᆞᆫ 기라
리 터니 일ᄂᆞᆫ은 ᄒᆞᆫ ᄉᆞᆯ년이 나 귀ᄅᆞᆯ 타ᄂᆞᆫ 항인 ᄉᆞ십을 거ᄂᆞ
리ᄂᆞᆫ 원문ᄆᆞᆫ 뵈 외 뵈음을 청ᄒᆞᆫ라 ᄒᆞ리ᄂᆞᆯ 감시 드려오
라 ᄒᆞ니 그ᄉᆞ년이 강상의 올나 비알ᄒᆞ리ᄂᆞᆯ 감시 ᄂᆞᆫ
을 드려 조시보니 셔로 기라리 던길 동이라 대경대희ᄒᆞ여
좡우ᄅᆞᆯ ᄆᆞᆯ니 치ᄂᆞᆫ 그ᄉᆞᆫ을 즙아 우열우 체알 꼴동 아네
ᄒᆞᆫ 번문을 나 미사 싱존 방을 아지 못ᄒᆞ여 부친 계셔 병임
ᄂᆞᆫ 항ᄒᆞ시 거ᄂᆞᆯ 너ᄂᆞᆫ가 지록 불효ᄅᆞᆯ 씨칠 셜 아 더 죽가
의 큰 곤심이 되게ᄒᆞ니 네 무슴 모음으로 불충불효ᄅᆞᆯ

형ᄒᆞ며 ᄯᅩᄒᆞᆫ도ᄒᆞᆫ쳑이되여 셰상의 비치ᄇᆞᆺ ᄒᆞᆯ죄ᄅᆞᆯ ᄒᆞ오
라 이러ᄆᆞ로 셩생이 진ᄉᆞᄒᆞᆫ샤 날ᄉᆞ ᄒᆞ여 곰니ᄅᆞᆯ 즙
이 드리라 ᄒᆞ시니 이ᄂᆞᆫ 피치ᄇᆞᆺ ᄒᆞᆯ죄라 너ᄂᆞᆫ일ᄌᆞᆨ 경
ᄉᆞ의 나아가 텬명을 ᄉᆞᆫ ᄉᆞᆨ라 ᄒᆞ오 빨을 ᄡᅳᆺ ᄎᆞ며 ᄂᆞᆫ
ᄆᆞᆯ이ᄭᅴ오ᄃᆞᆺ ᄒᆞ셔 ᄂᆞᆯ길동 이ᄇᆡ리ᄅᆞᆯ ᄉᆞᆨ이오 왈 쳔셩이
이의 니ᄅᆞ믄 부형의 위티 ᄒᆞᆷᄆᆞᆯ ᄀᆞ코져 ᄒᆞ시니 엇지 다
른 ᄡᅳᆯ이ᄂᆞ 시라 오리져 리 감계셔 당ᄒᆞᆫ의 쳔ᄒᆞᆫ길동을
위ᄒᆞ여 부친을 부친이라 ᄒᆞ오 형을 형이라 ᄒᆞ여 련
ᄃᆞᆯ엇지 이의 니ᄅᆞ리 ᄋᆞᆫ왕 ᄉᆞᄂᆞᆫ일ᄂᆞᆫ 쓸리 업ᄉᆡ니와
이제 ᄉᆞ제ᄅᆞᆯ 결ᄇᆞᆨ ᄒᆞ여 경ᄉᆞ로ᄒᆞᆯ녀 보니 ᄉᆞ셔 ᄒᆞ오다
시ᄡᅳᆯ이 업거ᄯᅳᆯ 감시 이ᄡᅳᆯ을 ᄃᆞᆺ오 일변 ᄉᆞᆯ허 ᄒᆞ며 일변
장계ᄅᆞᆯ ᄡᅴ 길동을 항쇄ᄌᆞᆨ쇄 ᄒᆞ오 함ᄉᆡ의 시러 건장
ᄒᆞᆫ쟁교 십여인을 ᄯᅵ 압영ᄒᆞ게 ᄒᆞ오 죽야 비도 ᄒᆞ여
을녀 보니 각ᄋᆞᆫ 비ᄀᆞ졍 드리 길동의 지ᄀᆞᆯ ᄅᆞᆯ 드리ᄂᆞᆫ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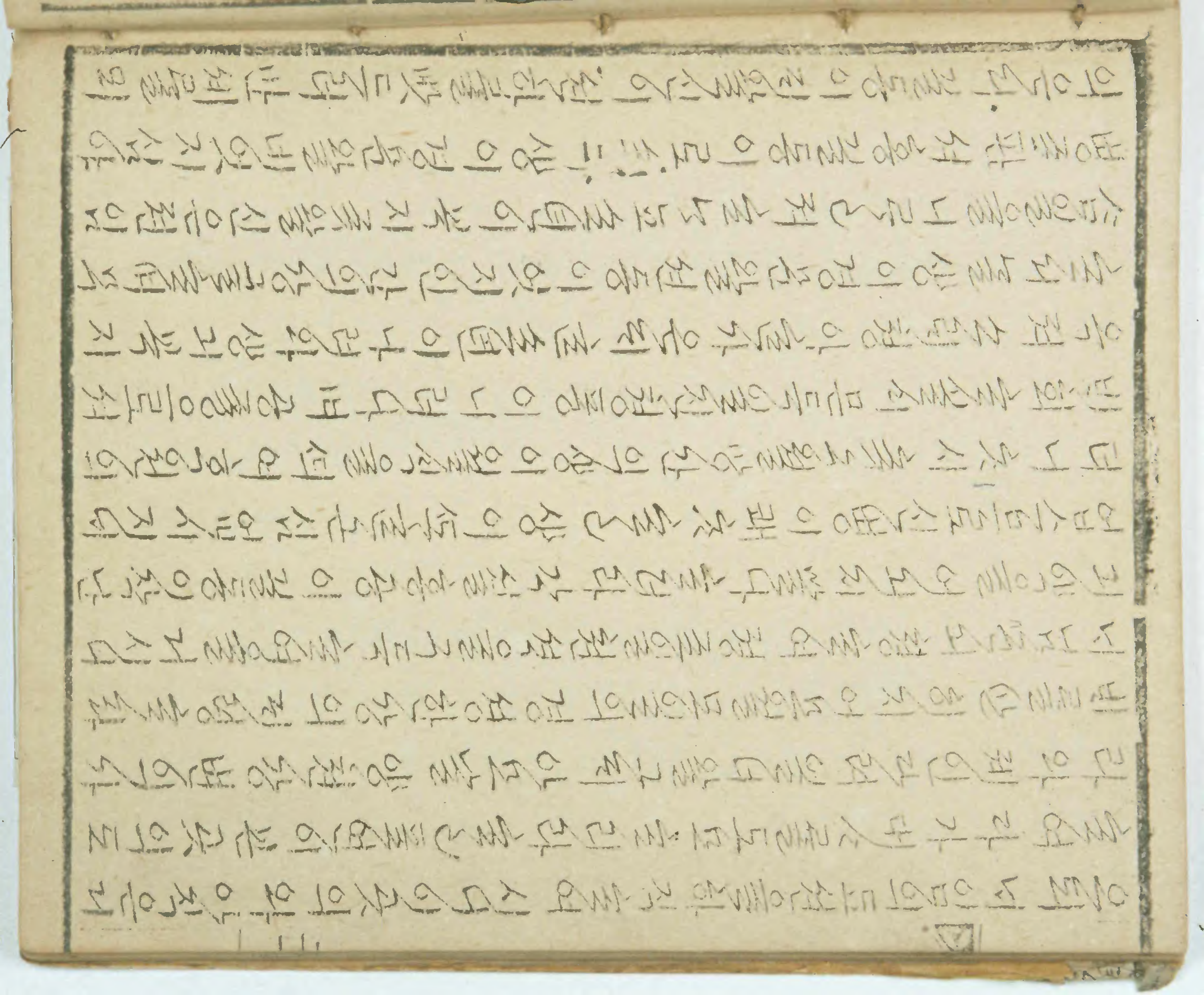
업는지리여둬길동이ㄷ경상을보ᄒᆞ일시의눈물
을흘니며낭중으로좃ᄎᆞ한액일지식니여님의드
리오니홍승이반행혹정신을ᄎᆞ리는지라길동등
이생게죽왈신의아메국은을반히닙어ᄉᆞ오니신이
엇지감히불측ᄒᆞᆫ힝ᄉᆞ를ᄒᆞ올잇가ᄲᅡᄂᆞᆫ신은본ᄅᆡ
쳔메ᄉᆞ셩이라그아비를아메라못ᄒᆞ옵ᄂᆞᆫ구형을
형이라못ᄒᆞ오니평셩한이밋쳐습기로집을ᄯᅢ리ᄂᆞᆫ
적당의ᄎᆞᆷ비ᄒᆞ오다빅셩은축ᄒᆞ오을뻠ᄒᆞ옵ᄂᆞᆫ각읍
ᄉᆞ령의ᄌᆞᆫ인ᄂᆞ틱ᄒᆞᆯ는지물을달치ᄒᆞ여ᄉᆞ오나이
제십년을지니면됴션을ᄯᅥ다가올곳이잇ᄉᆞ오니복걸
셩생은근심치ᄲᅡ루시ᄂᆞᆫ신을잡ᄂᆞᆫ관ᄌᆞ를거두옵ᄉᆞ
셔ᄒᆞᄂᆞᆫ발을ᄲᅡᄎᆞ며여둬길동이일시의녀ᄲᅥ지니ᄌᆞ
시본즉다ᄒᆞᆫ인이라생이더욱놀다시며정길동잡
기를다시힝관ᄒᆞ여팔도의나라시니라ᄎᆞ셜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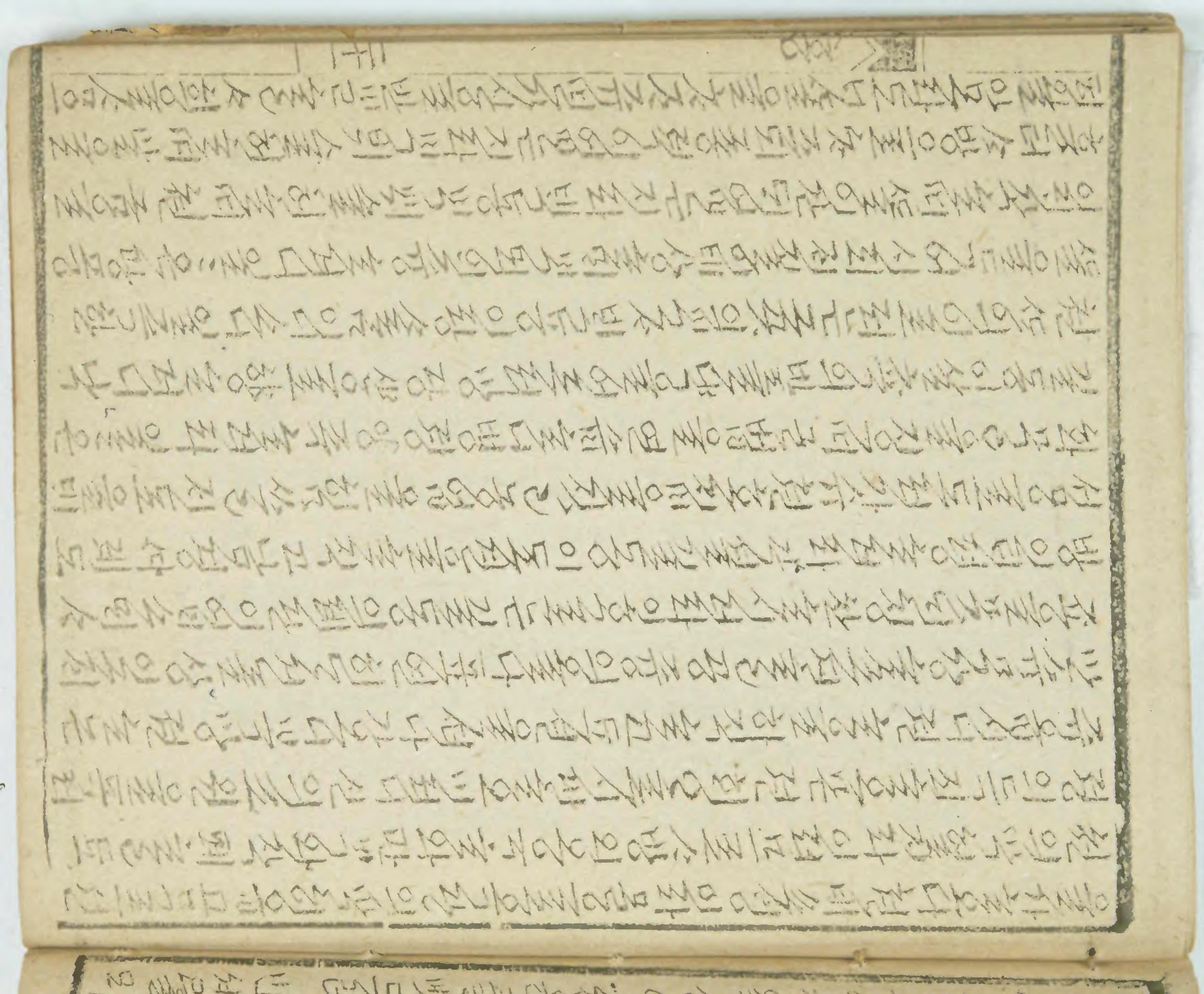
이 촐인을 엄시 ᄒᆞᆯ 두로 탄니 텨니 사대문의 빵을 븟
쳐시되 오신 홍길동은 아모리 ᄒᆞ여도 ᄌᆞᆸ지 못ᄒᆞᆯ리 ᄇᆡ
조판셔 꾜지를 나리 시면 ᄌᆞᆸ히리 이 다 ᄒᆞ엿거 놀 생이 그
방문을 부시ᄂᆞᆫ 됴신을 부하의 논 ᄒᆞ시니 졔신 왈 이 졔
그도 쳑을 ᄌᆞᆸ으려 ᄒᆞ타 가 ᄌᆞᆸ지 못ᄒᆞᆯ 읍ᄂᆞᆫ 도로 혀 병조
판셔 졔 속 ᄒᆞ시믄 불가ᄉᆞ문어 인ᄌᆞ이로 속이 다 생이
을 히 부이 사 다 반졍 상 감ᄉᆞ의 게 길동 ᄌᆞᆸ기를 지촉ᄒᆞ
시더라 이 셔 경 상 감셔 엄지를 부ᄂᆞᆫ 황공 송을 ᄒᆞ여
엇지 홀줄 모로 텨니 일ᄂᆞᆫ 은 길동이 광종으로 나러와
졀ᄒᆞᆫᄂᆞᆫ 알ᄉᆞ 졔지금은 졍작 길동이 오니 형장은 아모
념녀 마로시ᄂᆞᆫ 소졔를 결박ᄒᆞ여 경ᄉᆞ로 보니 소셔 감셔
이 쌀을 듯ᄂᆞᆫ 집속유쳬 왈 이 무거ᄒᆞᆫ 아회야 니도 날과
동거 여 놀 부형의 교훈을 듯지 아니 ᄒᆞᆫ 일국이 소동
계ᄒᆞᆫ니 엇지 이 돕지 아니리오 네이 졔 졍작 몸이 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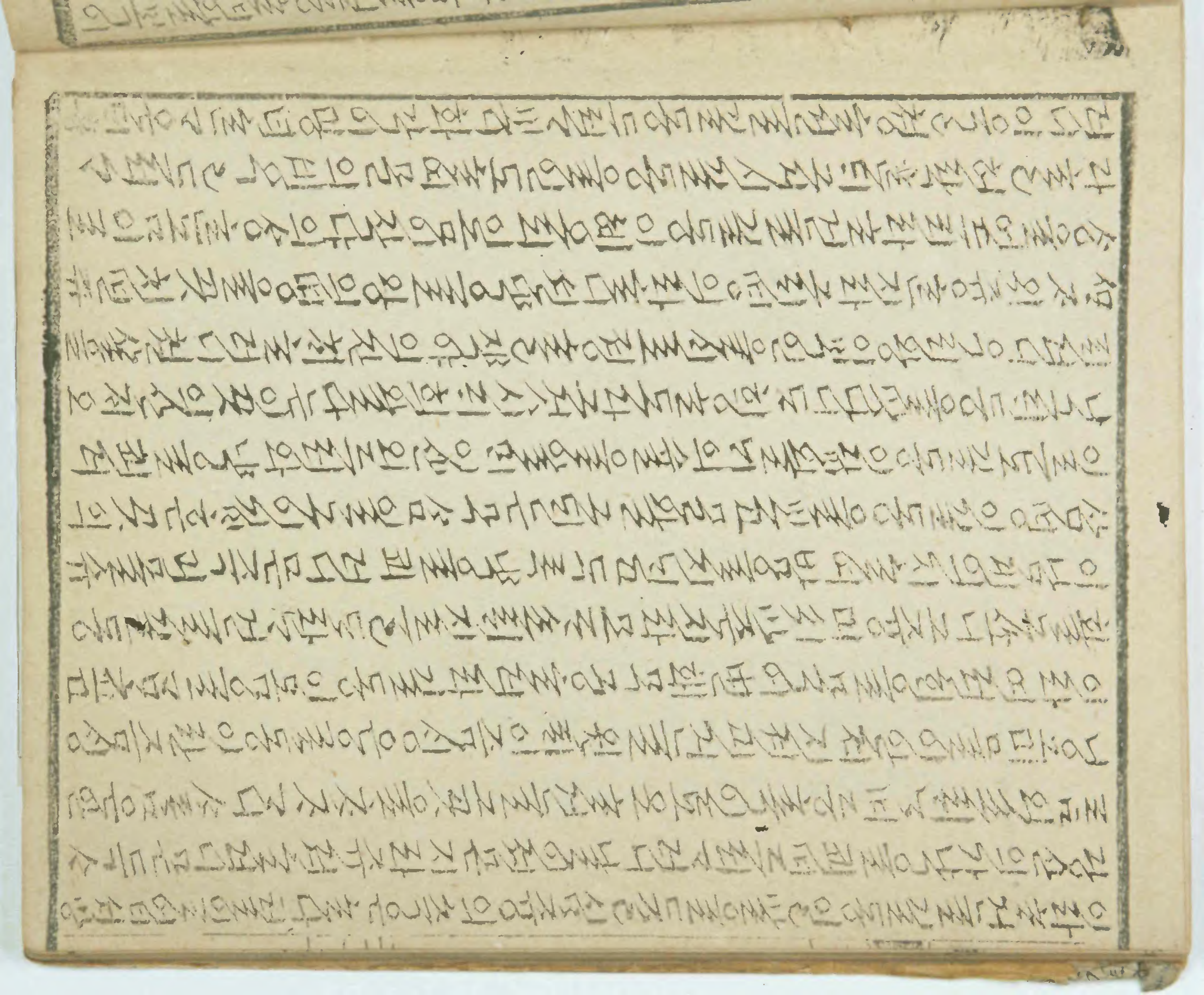
를보ᄂᆞᆫ즙혀가 기를ᄌᆞ원ᄒᆞᆫ니도ᄃᆞᆺ혀 긔륵ᄒᆞᆫ오히로다
ᄒᆞᆫᄂᆞᆫ급히 길동의 좌편타리를 보니 과연 흠졈이잇
거ᄂᆞᆯ즉시ᄉᆞ지를 각별결박ᄒᆞᆫᄂᆞᆫ 함거의 녀허 건장ᄒᆞᆫ
장교 ᄉᆞ십을 갈히 여쳘ᄃᆞᆫ 갓치 쓰ᄂᆞᆫ 풍우 갓치 모라
가되 길동의 안식이 ᄒᆞᆫ곰도 변치 아니ᄒᆞᆫ터라 여러날만
의 경셩의 다ᄀᆞᄀᆞ로니 길문의 니르러 ᄂᆞᆫ 길동이 ᄒᆞᆫ번 몸을
오동ᄒᆞᆫ데 쳘ᄉᆞ이 꾼허 지ᄂᆞᆫ 함ᄭᅦ ᄉᆞ여 져 밧치 미암이
허물벗듯 공중으로 오르며 ᄆᆞᆫ연이 온목의 못쳐 가니 장
교와 제군이 어이 업셔 공중만 바라보ᄂᆞᆫ 다 반닉ᄉᆞᆯ일ᄒᆞᆯ
ᄯᅳᆯ이라 ᄒᆞᆯ슈 업셔 이연유로 생ᄀᆞᆯ ᄒᆞᆫ옴ᄭᅴ 생이 드르
시ᄂᆞᆫ 알쳔ᄂᆞᆫ 의일련일이 어ᄃᆡ 이시리오 ᄒᆞᆫ시ᄂᆞᆫ 크게
근심ᄒᆞᆫ시니 제신중일인이 좃알 그길동의 원이 병
ᄌᆞᆫ판셔를ᄒᆞᆫ면 지니면도션을 떠나리라 ᄒᆞᆫ오니 ᄒᆞᆫ면
제원을 풀면 제스ᄉᆞ로 사은ᄒᆞᆫ오리니 이셔를 타즘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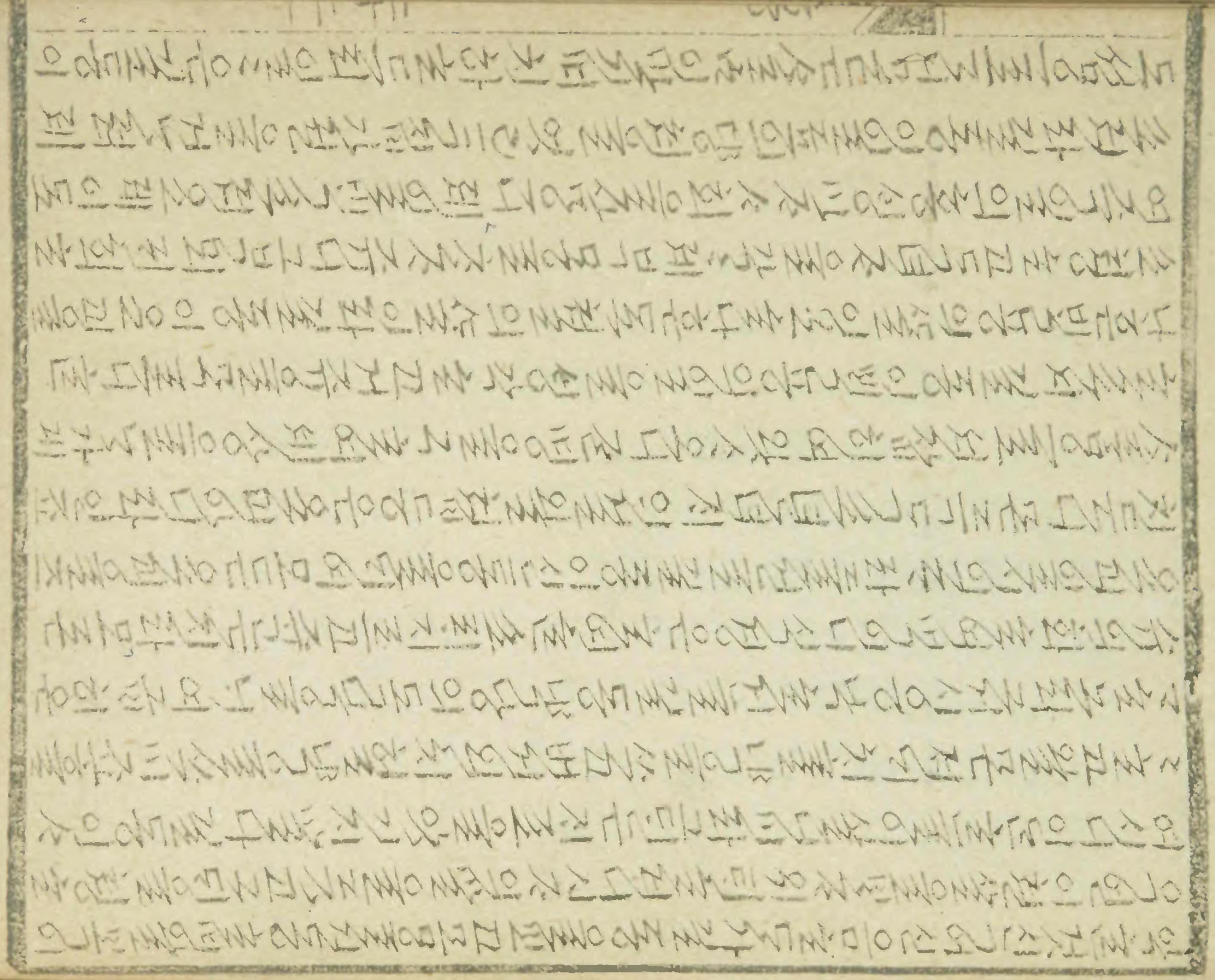
미조흘자 술ᄂᆞ 이라 생이올히 부이샤 즉시흥길동으
로병조판셔를제숙ᄒᆞ시고 사문의 방을붓치니라 이
ᄯᅴ길동이ᄂᆞᆫ쌀을두고 즉시사모관리의셔ᄯᅴᄂᆞᆫ 늡흔
홀현을현거로쉐놉히 타고 대로상의 완연이 드러
오며 니르되 이제홍판셔 샤은 숙라 은 라ᄒᆞ니 병조하
속이 빠ᄌᆞ ᄒᆞ위 술여 절ᄃᆡ의 드러갈시 빅관이 의논ᄒᆞ
되 길동이 옴ᄂᆞᆯ 샤은 술고 나올ᄯᅡ 시니 도부 숙를뎌복
술엿다 차나오ᄯᅡ 든일시의 쳐즉 이라 술고 액속을정
술여 ᄃᆡ 길동이 절ᄂᆡ의 드러가 속비 술고 즉 알소
신이 죄악이 지중 ᄒᆞᆫ 읍ᄂᆞᆫ 도로혀 텬은을 닙ᄉᆞ와
평생한을 푸읍고 도라 가오나 영결전하ᄒᆞᆫ 우니 복
방셩생은 반숙무강 술소셔 술고 발을 맛ᄎᆞ셔 몸을
공중의 소ᄂᆞ와 ᄌᆞ름의 ᄯᅳ이 여가니 구가ᄂᆞᆫ 바를 아지 못
홀녀라 생이 부시고 도로혀 ᄎᆞ탄왈 길동의 신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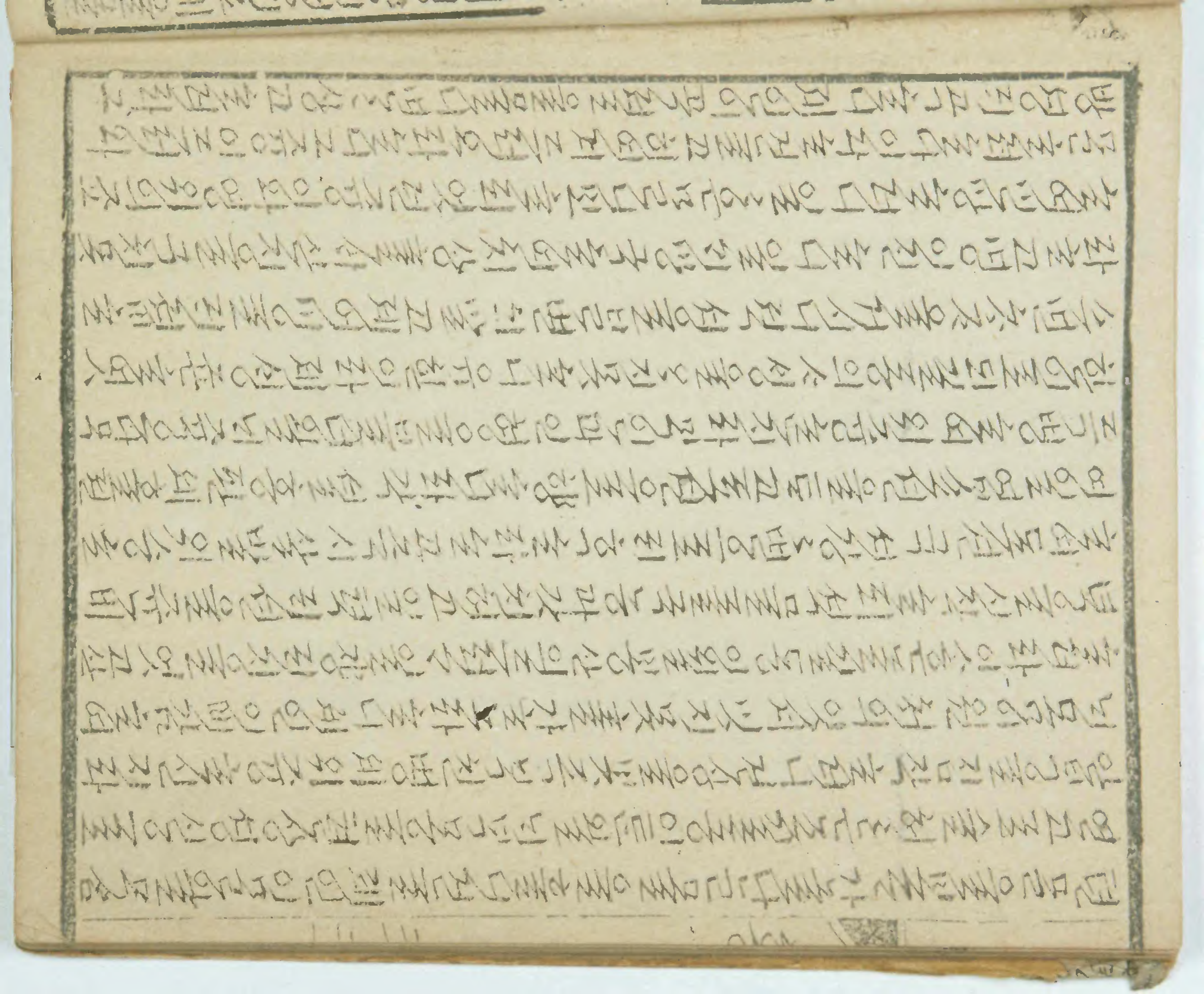
지로ᄂᆞᆫ ᄅᆞ금의 희한ᄒᆞᆫ도다 제지금ᄃᆞᆫ쳔을셔나 노라ᄒᆞᆫ
여시니 다시ᄂᆞᆫ작 폐ᄒᆞᆯ길 업ᄉᆞᆯ 거시오 비록 쥬상ᄒᆞ나
일단 쟁부의 쾌ᄒᆞᆫ ᄆᆞᆷ이 잇ᄂᆞᆫ지라 족히 념녀 업ᄉᆞᆯ
ᄂᆞᆺ다 ᄒᆞ시ᄂᆞᆫ 팔도의 사문을 누리와 길동 좁ᄂᆞᆫ 공ᄉᆞ를
거ᄌᆞ시니라 각셜길동이 제곳의 도라와 제젼의 세원
부ᄒᆞ되 ᄂᆡ단 녀을곳 이ᄀᆞ시니 녀등은 아모리ᄒᆞᆯ니 분을
ᄅᆞ니 도라오기를 기ᄃᆞ리라 ᄒᆞᆫᄃᆞ 즉시 몸을 ᄉᆞᆫᄉᆞ와 남경
으로 행ᄒᆞ여 가다가 ᄒᆞᆫ곳의 다ᄀᆞ르니 이ᄂᆞᆫ 수위를 도
극이 산 사변을 살펴보니 산쳔이 청숙ᄒᆞᆫᄃᆞ 인물이
번성ᄒᆞ여 가히 안신ᄒᆞᆯ곳이라 ᄒᆞᆫᄃᆞ 남경의 도려와
구경ᄒᆞ며 ᄯᅩ 제도라 ᄒᆞᆫᄂᆞᆫ 섬중의 도려와 두로 단니며
산쳔도 구경ᄒᆞᆫᄃᆞ 인심도 살피며 단니더니 운봉산
의 니르러ᄂᆞᆫ 진짓 제일 강산이라 족히 희칠백니 오옥
야 답이 가득ᄒᆞ여 살기의 정이의 합ᄒᆞᆫ지 한 니심의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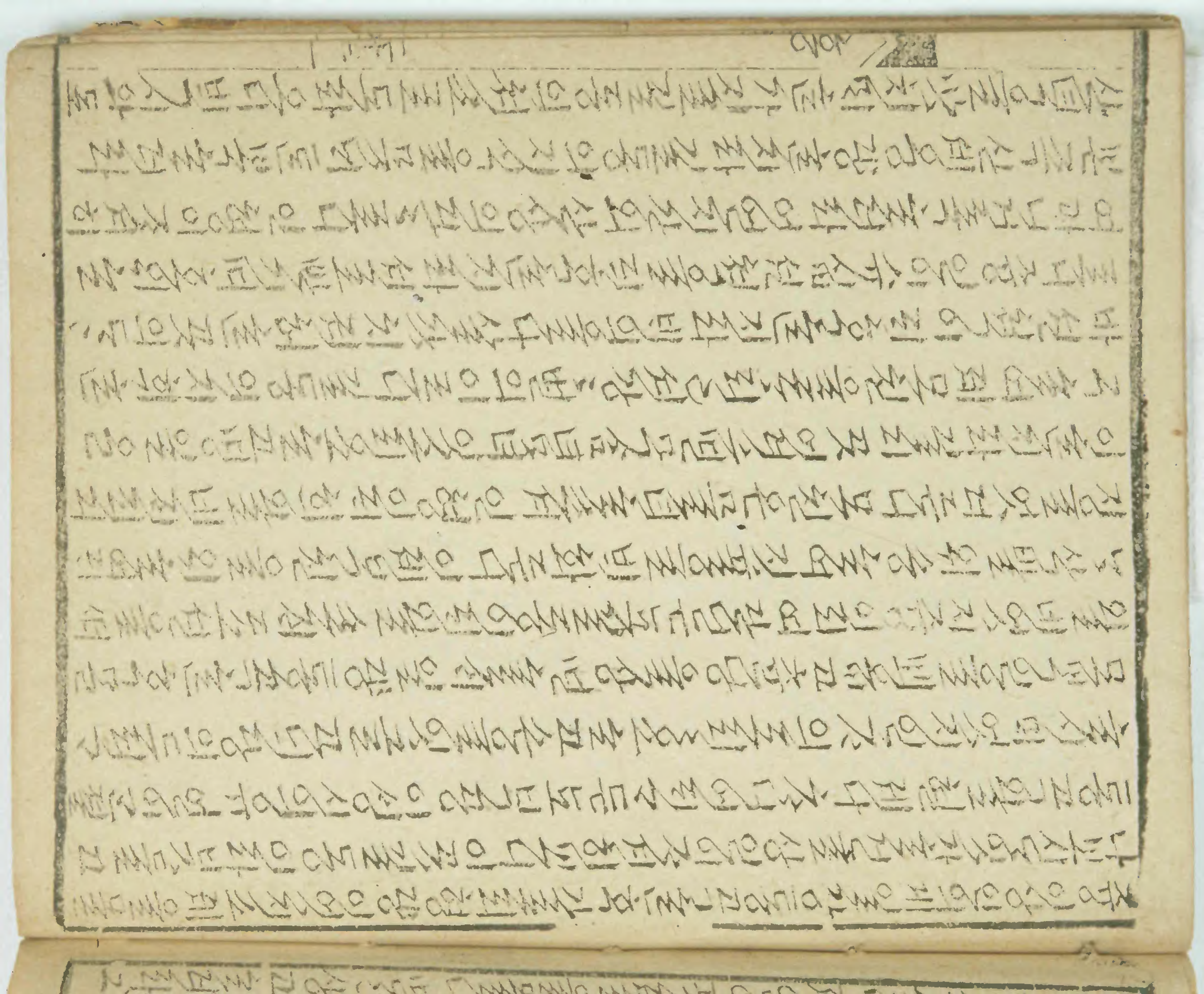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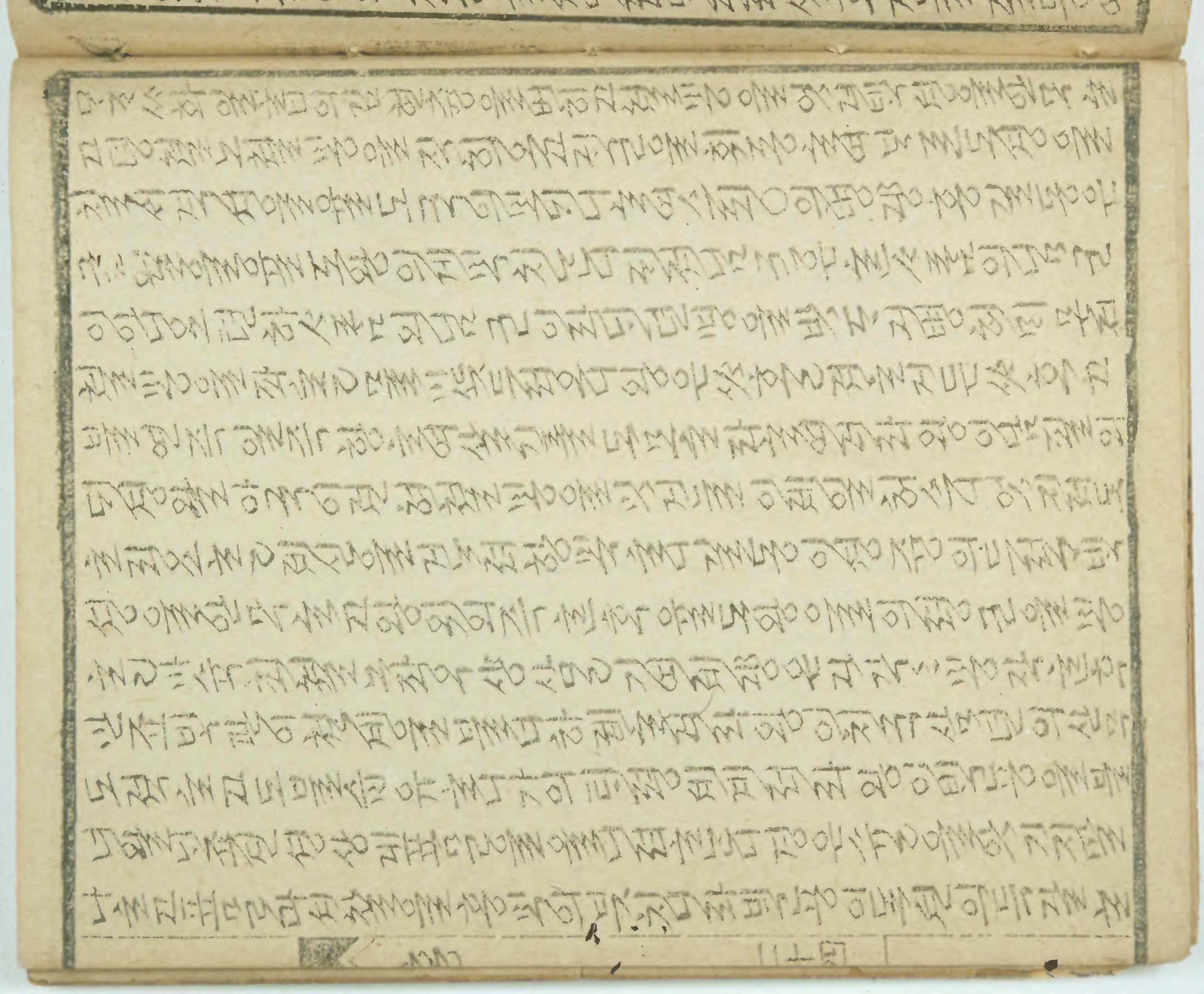












大正九年八月二十五日印刷
大正九年九月九日發行

不許複製

編集兼發行者　京城府寬勳洞十八番地　白斗鏞

印刷者　京城府堅志洞二十二番地　曹命天

印刷所　[illegible]

分賣所　[illegible]　翰南書林
京城各書舖